



고
맙
습
니
다
,
선
생
님

발행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02-775-9122
www.childfund.or.kr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0
발행일 2020. 4. 8
발행인 이제훈(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작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기획 RS기획
디자인 RS기획
인쇄 (주)미라인커뮤니케이션
ISBN 978-89-85648-73-8가

-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원고 내용은 본상 수상작 171편 중 32편을 선정하여 게재하였습니다.

- 각 원고는 원작자(아동)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정만 진행하였으며, 편지 제목은 원문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수상자의 인적사항(학교, 이름)은 2019년 7월 공모 접수 당시 기준으로
기재되었으며, 일부 아동은 가명 처리 하였습니다.

- 이 책의 저작권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있습니다.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목차

발간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 이제훈	8
심사평 제 4회 감사편지쓰기 공모전 심사위원 고도원	10
나를 살게해준 사람들	
진분수와 같은 딸할머니	14
나를 살린 엄마의 그 한마디	16
나도 너의 꽃길에 되어 줄게	20
나의 두 번째 엄마에게	24
고마운 우리 아빠	30
내가 더 고맙습니다	
나의 동생, 나의 꿈	36
내가 더 고마워요.. 아빠..	40
이제 당신의 사랑에 보답하려 합니다	44
부모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50
당신의 주름진 미소가 그립습니다.	52
영원히 잊지 못할 고마움	
언제나 가슴을 울리는 세 글자	58
나의 다리가 되어 준 엄마	64
따뜻한 햇살 오현주 선생님	70
새 생명을 주신 큰 엄마	78
아빠.. 고맙고, 사랑하고, 미안합니다.	82

목차

제가 응원할게요	
할아버지의 마음의 눈이 되어 드릴게요.	88
꿈을 실어다 준 선생님의 똥차	96
아버지의 오른팔이 되고픈 딸	100
내 삶의 밝은 빛, 내 친구	102
분홍돼지 딸이 슈퍼맨 아빠에게	106
고백하고 싶은 진심	
아빠에게 전하는 나의 진심	114
나에게 세상을 보여준 언니에게	116
내 마음 속 1순위 엄마	118
땃글은 사랑을 싣고	120
가슴에 눈물바다를 가진 우리 엄마께	124
할머니의 장미꽃	128
나의 짝친 나선희 교장 선생님께	138
나에게 정말 특별한 사람	
모든 걸 다 들어주는 램프요정 우리 엄마	144
내 마음의 치료자 이상향 선생님께	148
우리집 보물!! 내 동생 시완이에게	152
인생의 길라잡이 민정 선생님께	156
몰랐어요.. 내가 아프면 엄마도 아프다는 걸	162

발 간 사

성장과 배움의 과정에서, 그리고 오늘의 나로 크기까지는 누구에게나 스승이 있고 멘토가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의 위기에 빠졌을 때 용기와 희망을 다시 일깨워주신 선생님은 잊을 수 없는 일생의 은사로 가슴 속에 자리 잡습니다. 인생행로에 좋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처럼 아름답고 중요한 것을 찾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옛날부터 큰 복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를 사랑하는 스승’과 ‘스승을 존경하는 제자’라는 올바른 사제(師弟)관계는 학교 교육의 정상화의 기초입니다. 고마우신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는 것은 좋은 인성함양의 지름길입니다. 선생님뿐 아니라 부모님, 친구들에 대해서도 고마운 마음을 갖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는 2016년부터 감사편지쓰기 공모전을 열어 우리 아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방법을 알려주고, 존중과 배려를 통해 세대 간 소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4회 전국 감사편지 공모전에는 전국 초·중·고 학생들로부터 총152,236통의 편지가 접수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예쁜 손으로 직접 작성

한 편지가 모두 소중하기에 심사위원들께서 너무 힘들어 하셨지만, 정성을 다한 심사를 통해 171명의 아이들이 본상을 수상하게 되었고, 그중에서도 더욱 감동적이고, 가슴을 울리는 32통의 편지를 선정하여 이 작품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편지 속에는 자퇴의 기로에 있는 아이의 손을 잡아주신 교장 선생님, 부모님의 이별로 마음이 힘들었던 아이에게 두 번째 엄마가 되어주신 고모, 생면부지의 아동에게 자신의 간을 떼어 준 기증자, 장애를 갖고 태어난 동생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된 누나 등 다양한 사연의 감사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슴을 울리는 사연 때문에 감사편지 시상식은 감동의 눈물로 장식되기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편지쓰기 공모전은 교육부와 전국의 교육청 그리고 MBC·EBS·문화일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감사편지 공모전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아름다운 사제관계 그리고 올바른 교육풍토가 자리 잡도록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 이제훈

심사평

'고도원의 아침편지'를 쓴 지 어언 20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저의 아침편지를 받고 마음이 편안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아프다면 치유 받기를, 절망 상태라면 희망을 갖기를, 긍정의 기운을 받기를, 슬픔에 잠겨있다면 조금의 기쁨을 맛보기를, 어두운 곳에 숨어있다면 잠시 밝은 곳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소박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아침편지를 통해 매일매일 '편지를 쓰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편지'가 얼마나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지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삶과 관계, 치유의 측면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편지를 받는 당사자가 아닌 편지를 쓰는 사람에게 먼저 얼마나 많은 치유의 선물이 되어 주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수혜자가 바로 편지를 쓰는 저임을 알기에 오늘도 380만 명의 아침편지 가족들에게 감사를 가지며 살고 있습니다. 저의 편지를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 삶이 얼마나 보람되고 기쁜지를 깨달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4회째 진행되고 있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감사편지 쓰기 대회'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저에게는 전율이 흘렀습니다. 짧고 굵고 강렬한, 흥

미 위주의 문장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마음을 담아 전하는 정성 어린 손편지 대회를 열어 진행하고 있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출렁였습니다. 요즘처럼 SNS로 소통을 하는 세대들에게 편지 감성이 얼마나 깊게 새겨져 있을까 우려의 마음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마음으로 정말 오래간만에 손 편지를 원 없이 읽었습니다.

미소 짓다가, 울컥하다가, 분노하다가, 용서하다가, 회복하며 감동받고, 사연마다 담겨있는 살아있는 스토리에 벅차올랐습니다. 다채로운 감정으로 눈물까지 흘리며 단편 영화 몇 백편을 짧은 시간에 감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나이가 어리든 많은 남자든 여자든 또박또박 손글씨로 써 내려간 글자 사이사이 담겨있는 마음들이 어찌나 깊고 귀하게 읽히던지 점수를 내야 하는 시간이 저를 참 힘들게 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심사가 불가피한 대회이기에 매겨지는 점수들을 적어나가며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외친 소리가 있습니다. 이번 감사 편지쓰기에 참여하신 학생 "모두가 치유자다. 모두가 수상자다!" 그 마음 담아 심사 소감을 마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4회 전국 감사편지쓰기 공모전 심사위원장 **고도원**

내가 친구 문제,
가정사로도 힘들어할 때
모두가 날 떠나갈 때

오직 내 옆에 있어 준 건
오직 날 위해준 건
너뿐이었어



진분수와 같은
판할머니

서울 김음초등학교 4학년 정윤호

나를 살린 엄마의
그 한마디

서울 시당초등학교 5학년 박선율

나도 너의
꽃길이 되어 줄게

춘천 동부초등학교 6학년 이미연(가명)

나의 두 번째
엄마에게

부산 금명여자고등학교 3학년 김하영(가명)

고마운
우리 아빠

전북 강호항공고등학교 3학년 양혜림(가명)

진분수와 같은 판할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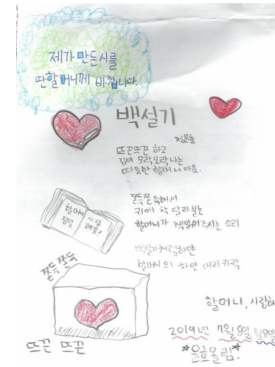
백설기 같은 판할머니께

할머니, 저 윤호예요. 감사편지를 쓰게 되어서 가장 감사했던 분을 고르는데 할머니가 가장 떠올랐어요. 할머니는 저를 약 10년이나 돌봐주시고 같이 놀아주시고 제 곁에서 늘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셨으니 저에게 하늘과 땅만큼 큰 은혜를 주신 거 아시죠?

할머니와 만난 날이 엇그제 같은데 10년이란 긴 시간이 찻바퀴처럼 빨리 지나갔네요. 엄마 말씀으로는 아이들을 돌보는 몇몇 사람들은 TV,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만 사용하고 잘 돌보지 않으며 차별을 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대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 반대였어요. 스마트폰을 이용하더라도 같이 노래를 들으며 춤을 추고 재미있게 놀아주신 것도 기억나요. 비록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부탁을 받아 돌봐주시기는 했지만 10년까지나 돌봐주신 걸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오.

저는 지금 4학년 2학기 예습으로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배우고 있는데 진분수를 보면 할머니가 떠올라요. 왜냐면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진분수를 쉽게 이해하게 도와주시려고 “진분수는 엄마가 아들을 업고 있는 모

※ 판할머니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를 봐 달라고 판할머니에게 부탁했다.
부탁을 받아 준할머니가 판할머니다.



백 설 기
뜨끈뜨끈 하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할머니 마음.

쫘득쫘득해서
귀에 착 달라붙는
할머니가 책 읽어주시는 소리

백설기처럼 하얀
할머니의 하얀 머리카락

할머니, 사랑해요

습이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옛날 저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가시던 할머니가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전 정말로 이날이 할머니와 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날이에요. 정말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래서 저에게는 할머니가 가족처럼 느껴져요.

할머니는 믿을 수 있는 저의 버팀목이시고 그동안 돌봐주셔서 친근하니 모든 걸 말해도 될 것 같은 폭신하고 편안한 침대 같아요.

할머니를 못 뵈는 1달이 넘었네요. 방학이 되면 바로 갈게요. 이렇게 많은 것을 도와주시고 저를 돌봐주시다니 할머니는 제 인생의 선물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는 저에게 예수님과 같아요. 할머니, 다시 한번 사랑하고 건강하세요.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2019년 7월 8일
할머니를 사랑하는 윤호 올림

정윤호 | 서울 길음초등학교 4학년 | 교육부장관상 수상작 ■

나를 살린 엄마의 그 한마디

나를 악몽에서 구해주신 우리 엄마에게

안녕하세요? 전 사당초등학교를 다니는 평범한 남학생입니다. 전 평범하게 유치원을 다니다가 초등학교를 입학 하고 학교를 재미있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3학년이 되자 어느 친구하고 말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 친구가 인기가 많은 친구인 줄 상상도 못하고요...

다음날 교실에 들어가 보니 친구들이 속닥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쳐다보며... 그렇게 이상한 1교시가 끝나고 말싸움을 했던 친구가 저를 부르더니 화해를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전 좋다고 손을 내밀었는데 제 손을 때리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때부터였어요, 제 악몽이 시작 된게..

제가 교실에 들어갈 때면 속닥 거리고 또 한때는 자기 집에 친구들을 초대했는데 게임을 할 때 웃긴 장면이 나오면 “넌 왜 웃냐? 바보야” 라며 저를 도발했어요. 전 엄마에게 바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는 경고를 3번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놀릴 때 마다 ”경고한다.“ 라고 했죠. 그럴 때마다 애들은 껏속말을 했어요. 꼭 제가 외톨이 같았죠.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못 참겠다며 저희 반으로 가서서 선생님

께 말씀하셨죠, “왜 우리 아들이 힘들어 하죠?” 선생님은 어렵게 대답하셨어요. 왕따를 당하는 것 같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넌 혼자가 아니야. 가족들이 있잖아.”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힘을 냈어요.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당해본 사람들은 알지만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거예요. 버텨보려 애썼지만 결국 집에 와서 울음을 터트리며 하루가 끝나는게 제 일상이 되었죠.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달래주셨어요. “오늘이 마지막은 아니지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돼”라고 말이죠. 다음날도, 또 다음날도 하루하루가 버겁고 슬펐어요. 하지만 엄마가 있기에 살아갈 수 있었죠.

그러던 겨울, 그 날은 유독 친구들의 놀림이 심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는 여기에 없을뻔했죠. 그러던 그때 엄마가 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 친구 어머님이랑 통화했어, 살면서 힘들때도 있지만 곳곳이 버

터야돼 아들, 응? 울고 싶을 땐 울어도 돼, 소리지르고 싶을 땐 소리 질러
도 되니까 우리 아들, 늘 웃자? 응?” 그때 그 눈가가 촉촉한 엄마의 얼굴
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 얼굴 덕분에 이렇게 5학년까지 곳곳이 살아갈 수
있고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하늘만큼 땅만큼 우주만
큼 사랑해요^^

2019년 7월 5일
사랑하는 아들이

박선율 | 서울 사당초등학교 5학년 | 교육부장관상 수상작 ■

나도 너의 꽃길이 되어 줄게

민아에게

민아야 안녕? 나 미연! 이렇게 진지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건 처음이야. 내가 자해를 하고, 모두가 날 괴롭히고 비웃을 때 넌 나에게 말을 걸어 줬었지. 처음에는 애 뭐야? 라는 생각으로 무시했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사람이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 항상 폭력과 나쁜 비속어를 사용했던 애들이 생각나서 사실 그 날 선을 더 많이 그었었거든.

나는 널 속여가며 밝은 척하면서 친구가 되었지. 근데 어느 날 그 비밀을 네가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아.. 난 또 버려지겠구나.’, ‘자살시도를 다음 날로 정해놨었는데 그냥 오늘 죽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가 울먹이면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말을 했어야지!” 라고 하는데 약점 보이기 무서워서 울지도 못했던 내가 주먹을 꽉 쥐고 참아도 눈물이 나오더라.

그날 내 찢어져 있던 달력이 다시 붙여졌어. 힘내서 살아보려고 그때부터 내 사건에도 자살이란 단어가 사라졌어. 그리고 네 예쁜 이름이 들어왔고 넌 내 평생 단짝이 되었어. 내가 자해를 하려고 할 때면 너에게서 전화가 왔고 내가 울고 있을 때면 네가 달려왔어. 난 그때 ‘이 아이를 위해

서라면 심장까지 내어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어. 난 사람을 무서워했는데 네 덕에 사람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구나. 사람이 이렇게 예쁘고 사람이 이렇게 웃을 수 있고 사람이 이렇게 연고가 될 수 있구나. 내 몇십 년간에 상처가 아물 수 있구나.

난 처음으로 진짜 친구가 뭔지 어떤지 누군지도 알 수 있었고 감사, 고마움 그리고 행복을 느꼈어. 우리 집은 부모님께서 사이도 안 좋으셔서 기댈 곳조차 없이 난간 위에 서 있고 모두가 조롱하고 사회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나를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또한 내 편이 되어주고 인생이 막막하고 죽고 싶을 때 내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어두운 방에서 혼자 울고, 상담사 선생님도 못 고치던 나의 불치병에 약이 되어줘서 고마워~ 이 편지가 네게 전해지면 좋겠다. 넌 내 친구가 아니라 내 가족이야.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아플 때는 보듬어주는 내 가족. 내가 각진 말로 널 아프게 하고 어린아이처럼 징징거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엄마처럼 언니처럼 날 보듬어줘서 고마워. 아마 이 고마움은 평생

같 거 같아. 내가 너에게 느꼈던 그 고마움, 감사한 감정은 이제 내가 돌려줄 때가 됐고 나도 이제 너에게 때로 언니처럼 때론 엄마처럼 다가가서 너의 연고가 되어주고 약이 되어줄게. 네 아픔까지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게.

민아야! 기억나? 내가 친구 문제, 가정사로도 힘들어할 때 모두가 날 떠나갈 때 오직 내 옆에 있어 준 건 오직 날 위해준 건 너뿐이었어. 내 아픔이 너에게도 옮겨질까 요즘 말 못 하고 흉터만 쌓아가다가 그걸 내가 발견하고서는 날 안아줬었지. 그때 “고마워.” 이 한마디면 되는데 그 한마디가 뭐가 힘들고 어려웠는지... 내가 어리석다.

항상 복잡한 마음에 머리를 쥐어 잡고 있으면 달려와 준 것도 너였어. 너라는 존재가 내 인생에 아주 예쁜 길이었고 어두운 것만 비관적이게 볼 때 네가 그 말 한마디로 내게 꽃길을 만들어 줬다고 생각해. 이제는 아주 네가 나에게 해준 것에 비해 아~주 쪼~금이지만 너에게 이 편지로 꽃길을 만들어 주려고 해.내가 한 말 내가 하는 행동이 모두에게는 ‘재 뭐야?’

라고 생각해도 ‘갑자기 왜 저래?’ 라고 말해도 너에게는 아주 작지만 한 송이 꽃이 되어 그 꽃들이 자라나서 너에게는 아주 짧지만 예쁜 꽃길이 되길 바랄게. 요즘 너도 어두워져 보여서 걱정했었거든.

민아야! 내가 진짜 사랑하고 아끼는 거 알지? 항상 고맙고 사랑해!

2019년 5월 21일
미연이가

이미연(가명) | 춘천 동부초등학교 6학년 | 교육부장관상 수상작 ■

나의 두 번째 엄마에게

고모에게

안녕, 사랑하는 나의 고모. 나는 고모가 사랑하는 하영이야. 막상 편지를 쓰려고 하니 나도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어른이 되기 직전의 나이라 꽤 쑥스럽긴 해. 그래서 더더욱 이번 편지 쓰기 캠페인을 계기로 마음을 전하고 싶어.

고모와 가족이 된 지도 벌써 13년이 훌쩍 넘었어. 부모님이 이혼하고 아무도 나와 동생을 맡아줄 사람이 없을 때 할머니와 함께 나를 가족으로 받아준 걸 정말 고맙게 생각해.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막연히 감사한 일이라고만 생각하곤 했었는데 언젠가 그때의 고모의 솔직한 마음을 알았을 때 심장이 철렁했었던 기억이 나.

그때 그랬었지, 나와 동생을 데려와 키우자는 할머니의 말에 고모는 덜컥 멀리 도망을 갔었다고. 처음 내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 원망의 눈물이 아닌 미안함의 눈물이야. 고모는 겨우 30대 초반이었고,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하려는 나이에 어린 나와 동생, 나이가 있는 할머니까지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 벅찼을 테니까. 그게 너무

무거운 짐이었다고 말해주는 고모의 표정에서는 씁쓸함이 느껴졌어. 10년을 넘게 함께 살아온 나인만큼, 그 무엇보다도 자유를 좋아하는 고모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는지 나는 알고 있었으니까.

‘도망가서 며칠간 연락을 끊었다가 결국 우리를 선택해준 고모가 만약 그때 나를 포기하고 고모의 삶을 살았다면 아마 고모는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요즘 들어 계속 이런 생각을 하는 나를 자책해. 그건 지금까지의 나와 고모를 부정하는 느낌이거든. 그렇기에 더더욱 마음을 고쳐먹곤 해.

고등학교 1학년, 처음 만화가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기억나? 다들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떠냐는 말 사이에서 유일하게 응원해줬던 고모가 늘 고마워. 만화라는 건 진로가 불확실하기도 하고 가난한 우리 집에 예체능을 전문으로 배운다는 건 생각보다 꽤 어려운 일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해줬을 때 속으로 무척 감동했어. 눈물이 찼끔 나기도 했고. 그때를 떠올리면 해이해졌던 마음도 굳게 먹게 되는 것 같아. 언제나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주는 고모, 정말 감

감사해요.

또 요즘 들어 나를 딸이라 불러주는 귀서 너무 고마워요. 남들에겐 가벼운 말이겠지만 나는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무게 있는 말이거든. 확실히 우리 사이는 조카보다는 딸, 고모보다는 엄마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입 밖으로 내뱉은 적은 없었는데, 최근에는 은근히 “딸 내미 다녀올게!” 같은 말을 슬쩍 덧붙이곤 했잖아. 축스럽지만 나름 내 마음을 표현한 거니까 좋게 봐줬으면 좋겠어. 많이 사랑한다는 뜻이야.

아직 나는 많이 부족하고, 특별히 해준 것도 없어. 그래도 바뀌 말하자면, 채워나갈 여지가 있다는 말이 되겠지. 고모가 내게 많은 힘이 되어준 만큼 이제는 고모가 내게 기댈 수 있도록 든든한 어깨를 준비할게. 마음껏 의지해도 좋아!

어릴 땐 가난한 우리 집이 싫었고 내가 기초생활수급권자라는 사실도 부끄러웠어. 그건 어떻게 보면 가난의 증표니까. 친구들 앞에서 마음껏 엄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상대가 부재한 것도 싫었고, 고모를 엄마라

고 둘러대는 것도 몇 년씩 어느 장소를 가든 반복되니 속상했던 기억이 나. 초등학교 때의 이야기라 조금은 빼놓아진 사춘기 시절 생각이긴 하지만 이해가 되긴 해.

그래도 지금은 마음을 달리 먹는 게 어떨까 싶어. 간단히 말해서 컵에 물이 반 정도 담겨있다면 ‘반밖에 없네?’ 보다는 ‘반이나 남았네!’ 라고 생각하자는 거지. 수급권자라서 나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집안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꿈 장학금에 추천되어 장학생도 됐었으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도 도움의 무게를 더 절실히 느끼게 된 것 같아. 긍정적인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지닌다는 것은 생각보다 행복한 일인 것 같아. 지금의 나를 꽤 자랑스럽게 여겨도 될까?

고모, 나는 꼭 성공할 거야. 그건 곧 고모의 선택이 옳음을 증명하고, 고모가 성공했다는 뜻이 되기도 하니까. 고모가 나를 믿는데 내가 나를 신뢰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 노력할게. 그렇다면 분명 행운 또한 우리의 편이 되어주겠지. 나는 내 꿈을 확신해! 그리던 미래가 실현되는 건 정말 설

레는 일 일거야. 기대에 부응 할 자신이 있으니 응원해줘.

성공이 뭐냐고 묻는다면, 더 바랄 나위 없는 행복을 거머쥐는 거라 답할게. 우리 꼭 행복해지자. 여기서 더 행복해질 순 없을 거라고 말하며 셋 노란 빛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그 날까지 말이야.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딸 하영 드림

김하영(가명) | 부산 금명여자고등학교 3학년 | 교육부장관상 수상작 ■

고마운 우리 아빠

사랑하는 우리 아빠에게

아빠 안녕? 어렸을 때부터 항상 예뻐하고 한없이 사랑을 줬던 저는 벌써 내년엔 성인이 되네요. 엄마가 없이도 항상 엄마보다 나를 더 챙겨주는 아빠한테 한없이 고맙고 사랑해요. 어렸을 때부터 나를 불쌍하게 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매일 나를 학교 버스가 오기 전까지 기다려 주던 아빠를 보고 친구들은 아빠가 헤벌쭙 웃는 모습에 놀리곤 했었죠.

나한테는 항상 웃는 아빠가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조금씩 크면서 다른 부모님들보다는 지적장애가 있는 우리 엄마 아빠가 부족해 보였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조차도 “아버지는 은행이라도 갈 줄 아시나?”며 당황스러운 질문들을 받기도 했어요. 정말 집에서는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나를 위해 해준 게 없다고 생각이 들면 엄마 아빠를 보고 다 원망하듯 소리쳐 버렸었죠. 그리고 후회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항상 성질에 못 이겨 엄마 아빠한테 일부러 짜증 내고 화내고 소리도 뻑뻑 지르고 했었어요. 그리고 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너무 못나고 못된 딸인 걸 느끼면서

소리 없이 울곤 했었어요. 힘들어서 코를 골며 주무시는 할머니 손을 잡고 울기도 했었고요. 그때는 많이 어렸고, 부끄럽게 여겼으니까 학교 축제나 공개 수업, 체육대회가 있어도 아빠한테는 오지 말라고 했어요. 어렸을 때 친구들이 아빠를 보며 놀렸던 기억이 자꾸 잊혀지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엄마가 아파서 친정으로 가버리고 나선 정말 기분이 이상했어요. 분명 매일매일을 함께하고 웃고 떠들고 했던 엄마였는데 보고 싶지도 생각이 나지도 않아서 이래도 되는 건지 싶었어요. 엄마를 억지로 보러 갔을 때 너무 어색하고 엄마를 똑바로 보고 웃을수도 없었어요. 그동안 엄마를 불쌍하게는 생각 했지만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진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래도 우리 엄마는 혼자 장을 보러 나가기도, 반찬을 해 식구들에게 밥을 해줄 수도 없는 엄마였지만 항상 해맑고 아이 같은 엄마라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때 기억으론, 엄마가 배가 너무 심하게 부풀었을 때도 이상함을 느꼈지만 괜찮다는 엄마의 말을 그냥 믿고는 집을 떠나 학교에 가

서 일주일 동안 보지 못했어요. 그 후 간경화로 병원에 입원했고, 정말 심각해서 위험할 수 있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내려앉고 견딜 수 없는 죄책감에 울며 힘들어 했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나를 키워주신 할머니가 배가 그렇게 불렀었다면 병원 가보라는 그 한마디로 끝났었을까?’ 하는 생각에, 너무 괴롭고 미안하고 엄마가 불쌍했어요.

그 일 이후 외할머니는 우리 집에 오셔서 친할머니와 싸우고 엄마를 데려갈 때, 저는 차라리 다행이다 싶었어요. 우리 집에서 우리 엄마는 자신을 꾸미지도, 어디 한번 예쁘게 입고 마실을 나가지도 못했으니까. 지적 장애인 엄마에 지칠 때로 지치신 할머니는 엄마를 돈 벌어오는 일꾼으로 밖에 보지 못했으니까. 방황을 하는 오빠한테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했으니까. 남편이라는 아빠는 그런 엄마를 보고만 있었으니까. 또 나는 그런 엄마를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엄마가 보고 싶지 않아서 엄마가 안 왔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오면 엄마가 또 불쌍해지니까. 그냥 좋은 얼굴로 친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후 아빠는 엄마 없는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해주고픈 측은한 마음이 있었는지 주말에 학교로 돌아갈 때마다 조심히 도착했냐고 전화하고, 집에 오는 날에는 몇시 차로 올거냐고 물어보고, 항상 데리러 나와 같이 밥 먹을 준비를 하며 나를 든든하게 해주셨죠.

아빠한테 해주고 싶은게 너무 많은 딸이지만 아직은 어리고 돈도 없네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공무원이 돼서 아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힘들게 하지 않을게요. 아빠 좋아하는 노래방 기계도 집에 들여 놓을게요. 아빠가 좋아하는 김치랑 라면도 매일 매일 채워놓을게요. 주말마다 공원도 나가고 내가 결혼을 하면 아빠 옆집에 살거예요. 추억도 행복도 없었던 과거 말고 이제 우리 행복한 미래를 함께 살아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가족 꼭 다 행복하게 해줄게요. 아빠!! 정말 많이 사랑해요~~

2019년 5월 31일
작은 딸 혜림이가

양혜림(가명) | 전북 강호항공고등학교 3학년 | 교육부장관상 수상작 ■

아버지는 저에게 항상
미안하고 고맙다고 합니다.
제가 더 미안하고 고마운데..
그 말을 하면 눈물이 쏟아집니다.



나의 동생,
나의 꿈

대전 도안고등학교 1학년 김예은

내가 더 고마워요..
아빠..

광주 진남중학교 1학년 성승훈

이제 당신의 사랑에
보답하려 합니다

대구 신기중학교 3학년 이예설

부모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인천 가좌여자중학교 1학년 배수빈

당신의 주름진 미소가
그립습니다.

서울 은평중학교 1학년 남궁솔

나의 동생, 나의 꿈

내 사랑하는 동생 주은이에게

주은아 안녕 언니야~ 너한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건 처음이네. 웬지 기분이 새롭고 뭔가 묘하기도 하다. 우선 주은아, 언니는 너에게 고맙다는 말을 먼저 해주고 싶어. 그 작은 몸으로 많은 수술을 버텨주고, 지금도 아프지만 우리 가족 곁에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워.

네가 태어날 때 언니는 고작 4살이어서 너의 상태를 잘 모르고 있었어. 수술 때문에 서울로 가서 떨어져 지낸 엄마를 그저 보고 싶어만 했지.

거의 1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너의 모습은 기쁨보다는 놀라움과 슬픔 뿐이었어. 하나도 크지도 못하고 응알이를 그렇게 잘하던 네가 목소리도 전혀 내지 못하고, 작은 몸에 온갖 기계와 목에 구멍을 뚫고 코에 줄까지 끼고 온 널 보며 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서움만 앞섰던 것 같아.

그런데 언니가 자라면서 주은이가 어디가 안 좋은지, 어떻게 수술했는지, 몸 상태는 어떤지를 점점 알게 되더라. 요즘에도 더 자세히 알아가는 중이야. 빨리 건강해져서 언니랑 말싸움도 하고, 같이 쇼핑도 하고, 같이 이야기하다 잠들기도 하면 좋겠어.

네가 12년만에 “엄마”라는 소리를 냈을 때 언니가 울었던 거 알아? 그

냥 “아아” 소리만 내던 네가 엄마라고 말하니까 그냥 눈물이 나더라.

나중에 ‘언니’라고 말하게 될 때까지 언니는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늘 기대하고 있을게. 네가 엄청 클 때까지 건강해질 때까지 언니는 항상 기도하며 기대하고 기다릴 거야.

언니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친구들이 동생이랑 학교에 같이 가는 걸 보면 항상 부러웠어. 나도 너의 손을 잡고 같이 학교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부터 가끔 네가 다른 애들처럼 말도 잘하고 같이 놀고, 공부하는 상상을 했었어.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었어? 지금 언니 옆에 있는 주은이가 내가 사랑하는 진짜 주은이인걸! 지금 모습 이대로 사랑하고 감사해!

언니는 주은이로 인해 꿈이 생겼어. 의사까지는 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아주 유능하고 가슴 따뜻한 간호사가 되는 것!

또 힘든 우리 가정에 도움을 주셨던 분들처럼 마음으로 보듬어 주는 훌륭한 복지사도 될거야. 언니의 꿈을 응원해줘!

주은아~ 지금까지 잘 이겨내 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언니랑 가족

들이랑 함께 이겨나가자!

아프지 않고 항상 건강하고, 늘 웃음만 가득하게. 언니가 많이 아끼고
좋아하고 사랑한다.

2019년 6월 7일
널 사랑하는 예은언니가

김예은 | 대전 도안고등학교 1학년 | 교육부장관상 수상작 ■

내가 더 고마워요.. 아빠..

아버지께

아버지 못난 아들인 승호예요. 정말 어버이날에도 진심을 담아 쓰지 못했는데 이러한 이벤트가 있어 전해봅니다. 아빠가 저에게 준 사랑들을 잊지 못하죠. 2014년 말 2학년이었던 저 그리고 36세였던 아빠가 잊지 못할 일이 있었죠. 아빠는 아내를 잃었고 저는 엄마를 잃었죠. 저는 두 분에 사이가 나쁜지 몰랐죠. 엄마가 이혼하기 전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엄마가 꼭 데릴러 올게”라고 했죠.

하지만 결국 현관문은 닫혔고 저에겐 희망이 없는 것 같았죠. 그렇게 아빠는 심적으로 힘들어 회사를 그만두셨고 저는 학교에 가서도 티를 안냈죠. 그런데 얼마 후 소식이 전해져왔어요. 할머니가 마련해준 집이었지만 명의가 엄마로 되어있어서 방을 빼라고 하었죠. 그때 우리는 결국 길 거리에 나왔을 위기에 놓였죠. 하지만 고모의 도움으로 이사를 갔고 결국 집은 생겼지만 겨울에는 보일러가 거의 되지 않았고, 여름에는 에어컨도 맘껏 틀지 못해서 결국 아빠는 현장에 뛰어드셨죠? 아빠는 매일 땀에 적셔왔고 정말 그걸 보곤 마음이 아팠고 그 당시에 아빠와는 라면만먹고 살

았죠. 저는 아빠를 위해 집안일을 했고 아빠의 칭찬 한마디가 너무 좋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할머니의 도움으로 지금 사는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순탄치만은 않았죠. 아빠는 여름만 되면 더위를 먹었고 저는 그게 심각한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애들은 다 학원 가는데 나만 가지 못하는 것이 참 불만이었어요. 지금 돌아보니 내가 그걸 아빠에게 말했으면 아빠 가슴에 큰 상처가 났을거 같아요.

그리고 결국 엄마한테 연락이 왔죠. 하지만 저는 상처의 늪에 들어갔고 저는 거절했죠. 그리고는 후련했죠. 그리고 저의 친할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아빠는 하던 일을 다 멈추고 할머니만 간병을 하는 모습을 본 저는 ‘저게 자식이구나!’ 하며 내 삶을 되돌아 봤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항상 미안하고 고맙다고 합니다. 제가 더 미안하고 고마운데... 그 말을 하면 눈물이 쏟아집니다. 아빠에게 철부지 같은 행동을

하는 나를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놓지 않고 안아주신 아버지께 감사
합니다. 아버지 항상 만수무강 하시고, 저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사랑합니다.

불효자 승훈이 올림

성승훈 | 광주 진남중학교 1학년 |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작 ■

이제 당신의 사랑에 보답하려 합니다

아빠에게

‘조금만 있다가 헤드려야지’, ‘나중에 해도 되는데 뭘’ 이런 생각을 했던 저를 반성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매일 효도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쉽지는 않네요. 지금부터 아빠에게 말하지 못했던 제 생각을 적어 보려고 해요. 늘 사랑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표현하긴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ㅎㅎ 이 편지로 먼저 제 마음을 전하려고요.

앞에서 제 생각을 반성하고 있다고 했죠? 기억하실진 모르겠지만 한 2년 전으로 돌아가야겠네요. 저에게 여러 의미로 정말 목격한 사건이었거든요. 전에 언니와 아빠가 크게 싸운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새벽까지 울면서 대화하고 깊은 상처까지 얘기하고 서로의 마음을 꺼내본 날. 그때 저는 처음으로 아빠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과 아빠가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빠가 해 주신 얘기 중 저를 반성시킨 이 말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아빠는 지하철 같은 곳에서 크고 무거운 위험한 기계를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너무 위험한 순간들이 많았고, 자동차를 타고 먼 길을 운전해

서 일하러 가기 때문에 매일 매일, 일을 나갈 때 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볼 날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 이 말은 정말 다시 생각해도 눈물이 고이네요.

그런 아빠의 말을 듣고 나니까 아침에 아빠가 나보다 일찍 출근하실 때 저를 깨우는 걸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끝까지 뽀뽀하고 가려고 하고, 내가 먼저 학교에 갈 때는 새벽에 주무신 날에도 억지로라도 일어나셔서 뽀뽀해주시고 나갈 때 잘 다녀오라고 현관까지 와서 배웅해 주시고, 내가 집을 나가서 지하철을 타러 갈 때까지 추운데도 배란다 문을 열고서 인사하면서 10분 동안 배웅해 주신 다음 다시 주무시는 이런 아빠의 행동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표현은 못 했지만 아빠가 늘 이렇게 배웅해 주셔서 학교 가는 길이 즐거워요. 또, 언니가 “아빠는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감정적으로 슬퍼하고 화를 내기보다는 너무 이성적으로 해결하려고 해!” 라고 말했었잖아요. 저도 이때 언니와 같은 생각이었는데 뒤에 나오는 아빠의 당황한

말에 또 묵직한 충격을 받았어요.

“아빠는 할아버지께서 아빠가 어릴 때 무슨 일을 당해오면 너무 감정적으로 대처해서 더 큰 일로 벌어져서 힘들었다. 그래서 아빠는 너희가 아빠의 감정적인 면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해서 이렇게 행동한 거였는데 너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나 보다.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고 너희를 키워가면서 배워가고 있다. 앞으로 고쳐갈게.” 라고 하신 이 말에 정말 ‘아빠도 아빠가 처음인지라 서툴 수 있는 건데, 지금의 아빠도 나에게 정말 좋은 아빠인데... 나는 그보다 해 드린 것이 없는데 지금 뭐 하는거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날은 많은 생각을 했고, 정말 아픈 밤이었어요. 지금의 저에게 많은 교훈을 준 날이기도 하고요.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저는 순간순간 짜증을 내고, 화내고 했는데, 이날 이후 아빠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줄도 몰랐고 알려고도 하지 않은 나에게 너무 화가 나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빠는 늘 아빠의 아픔을 숨기고 계셨는데 이젠 좀 더 드러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다짐을 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정말 죄송해요. 아빠가 일하고 오셔서 몸이 빠근하고 아프다며 안마를 해달라고 하면 저는 “아, 숙제해야 되요.”, “지금 저 엄청 피곤하니까 내일 해드릴게요.” 이러면서 피했잖아요. 돌아보니 정말 부끄럽고 반성하게 되네요. 오늘부터라도 정말 자주 안마해 드리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깨 안마는 꼭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저번에 티비를 보는 아빠의 뒷모습을 보게 됐는데, 어깨가 엄청 굽으셨더라고요. 분명 제가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말이죠. 아마 그간의 힘듦과 가족을 사랑하는 만큼의 무게가 내려 앉아있는 거겠죠?

제가 무엇을 해드려도 이 무게들은 떨어지지 않겠지만 덜어드릴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앞으로는 제 어깨 안마받고 꼭 쉬세요! 아무리 아빠의 어깨가 굽어도 아빠는 지금도 앞으로도 저에겐 세상에서 제일 세고 든든한 우리 아빠예요. 아직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아빠부터 생각나고 아빠가 나쁜 사람들을 다 잡아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전 요

즘 들어 고민이 하나 생겼는데요, 아빠가 이 고민을 들으면 웃으실지도 모르겠네요. 아빠는 제 말을 척하면 척하고 알아들으시잖아요? 다친 걸 말하면 혼날까봐 울적하게 애교를 부릴 때는 아픈 걸 딱 알아채고 “어디 약 발라줄꼬?” 하고 받아주시고, 귀엽게 “아뽕~” 하고 부르면 “예설이 치킨먹고싶제?”하고 딱 알아채 주셔서 좋고 재밌었어요.

하지만 이럴 때면 꼭 ‘커서 이런 식으로 내 말을 잘 알아들어 주고 기분을 잘 풀어줄 수 있는 남자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은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면 우리 아빠랑 비교하는 건 아닐까?’라는 제가 생각해도 조금 웃긴 고민이 생겼네요. 역시 전 누가 뭐라고 해도 아빠가 최고인거 같아요!ㅎㅎ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데요, 새벽에 일을 갈 때가 있고,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고 잠을 제대로 푹 못 주무시고 작은 소리만 들려도 잘 깨는 우리 아빠. 앞으로는 좀 더 힘든 건 힘들다고 말 하시면서 편하게, 건강하게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지금도 제 뒤에서 얹게 주무시면서

팔이 아프다고 주물러 달라고 하시네요. 이제 효도하겠다고 마음먹었으니 빨리 가서 안마해드려야겠네요. 이 말을 끝으로 안마해 드릴게요.

사랑합니다. 부끄러워서 하지 못하는 이 말이 저의 안마를 통해, 앞으로의 효도를 통해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오래오래 건강하게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아요.

2019년 5월 10일
누구보다도 아빠를 사랑하는 이예설 올림

이예설 | 대구 신기중학교 3학년 |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작 ■

부모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부모님께

안녕하세요? 저 수빈이에요. 부모님이 낳아주신 하나뿐인 장녀 배수빈이요! 요즘 무더운 날씨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도 두 분 모두 열심히 일하러 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항상 두 분께는 미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밖에 안 들어요.

두 분 모두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가끔 부모님이 장애를 가졌다는게 부끄러울 때도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장애라는 이유로 왕따를 당한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1학년 때부터 장애인이란 걸 알게 되고 장애가 부끄럽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장애 이해 교육을 학교에서 많이 받았을 텐데 아직도 장애인을 꺼려하는게 정말 이해가 안 가고 서운했어요. 욕할 때 “장애인 xx야.”라고 들을 때도 많이 속상했어요. 하지만 전 부모님이 몸이 불편하신게 전혀 부끄럽지 않게 되었어요. 잘 키워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남들과는 다를 게 없는 부모님이란 걸 알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가끔 장애인인 자

기를 탓할 때 전 너무 속상해요. 부모님이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닌데 장애인이더라도 남들과 다르지 않게 잘 챙겨주시고 보듬어 주시는데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지금 이대로그가 가장 좋은 거 같아요.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저희의 일상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영원히!!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2019년 7월 10일
부모님의 하나뿐인 장녀 배수빈 올림

배수빈 | 인천 가좌여자중학교 1학년 |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작 ■

당신의 주름진 미소가 그립습니다.

이제는 저를 알아보실 수 없는 할머니께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께 편지를 언제 써봤는지도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오래됐네요. 할머니의 성함을 부르면 저의 어린 시절 힘이 되어 주신게 생각나요.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셔서 할머니께선 어린 시절의 저를 늘 보듬어주시고 키워주셨던 제2의 부모님이셨죠.

오늘 할머니를 뵈러 갔다 왔어요. 점점 구부러지는 팔과 다리를 가지고 계셨고 눈동자는 점점 초점을 잃어 가시는 것이 눈에 띄었어요. 산소 호흡기를 달고 계시는 모습이 정말 안쓰러웠습니다. 예전보다 상황은 더 악화되어 저마저 알아보지 못 하시는게 가슴이 아팠어요. 할아버지께선 할머니를 보시고 평평 우셨습니다.

할머니께선 매일 아침 저희보다 일찍 일어나셔서 저와 할아버지를 깨우시고 늘 따뜻하고 건강한 밥을 차려 주셨던 게 생각나요. 철부지였던 저와 고집이 세셨던 할아버지를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외동딸인 저와 함께 놀아주셨죠. 숨바꼭질도 자주 해주셨고 미용실 놀이도 해주셨고 제가 학교에서 배운 국어를 할머니께 가르쳐 준다

고 막 때를 부렸던게 기억나네요. 투정 받아주신 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크고 나서 할머니를 무시했었던 게 생각이 나요. 할머니가 절 걱정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간섭하는 것도 짜증 내고 화났던 것 정말 죄송해요. 좀 더 빨리 뉘우칠 것을 이제서야 편지로 적어 보내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쓰러지셨던 날 병문안을 갔을 때 병원 밥 조금 뺏어 먹은 것 죄송해요. 그래도 웃으시면서 절 병원 침대에 함께 앉혀 주셨던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께선 퇴원 후에도 자주 넘어지셨어요. 기억나세요? 할머니의 이마에 피가 흐르는 채로 집안으로 멧찍은 듯 웃으며 들어오시던 때에 제가 무서워서 울었었죠.

그때 할머니께선 걱정시키지 않으시려는 듯 치료 중에도 아프다는 말도 없이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하셨어요.

이 편지를 쓰더라도 할머니께선 알아들으시지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옆에 앉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부모님이자 저의 부모님이 되어주신 할머니 덕분에 이렇게 컸습니다. 당신의 웃는 모습이 그립습니다. 이제는 사진으로 밖에 보지 못하는 당신의 미소가..

할머니의 주름 진 미소가 그리운 손녀 남궁솔 올림

남궁솔 | 서울 은평중학교 1학년 | 서울시교육감상 수상작 ■

내가 먹는 걸 보는게 제일 행복하던
아빠 미소가 그립습니다.

다 잊어도 그날들의 기억은
아직 향기가 납니다.



언제나 가슴을 울리는
세 글자

부산 삼정고등학교 1학년 허민정

나의 다리가 되어 준
엄마

대구 보건고등학교 2학년 박가은

따뜻한 햇살
오현주 선생님

인천 용현남초등학교 6학년 권유민

새 생명을 주신
큰 엄마

광주 윤림중학교 3학년 4반 박민수(가명)

아빠.. 고맙고, 사랑하고,
미안합니다.

울산 약사중학교 3학년 신민아

언제나 가슴을 울리는 세 글자

하나뿐인 내 편 할머니께

할머니 안녕, 나 할머니 손녀 민정이야. 매일 아침 눈 뜨면 보는 게 할머니 얼굴이지만 편지를 쓰려고 하니 할 말이 너무 많아. 일하느라 바쁘신 아빠를 대신해 아침마다 짜증 내는 나를 깨우느라 우리 할머니 많이 힘들었지? 말도 안 듣고 짜증만 내는 나를 뭐가 그리 예쁘다고 안아줘? 그래도 할머니 나 항상 말은 이렇게 해도 정말 힘들 때 할머니 생각 많이 했어.

내가 며칠 전에 아빠랑 싸우고 울며 집 들어간 날 할머니가 잘못했다고 그만 올라고 할미 속상하다고 했던 거 기억나? 그날 정말 내가 이렇게 바르게 크고 있는 것이 할머니 덕분이라고 생각했어. 우리 할머니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냥 할머니가 좋아. 내가 고등학교 들어와서 늦게 마치는 날들이 많아지면서 집에 오래 있지 못해서 할머니 많이 외로웠지? 내가 할머니를 신경 못 쓴 것 같아.

말 한마디 나눌 사람 없는 할머니에게 내가 말 한마디 못 건네줘서 미안해. 내가 할머니 마음 헤아리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후회가 너무 많이

돼. 지금이라도 잘 해야지 하는 데 사랑한다고 말 못 한 게 많이 가슴에 막혀 할머니. 항상 조심하라고 어두울 때 다니지 말고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친구들이랑 싸우지는 않는지 말하는 할머니를 보면 가슴 한쪽이 막 아려.

이제 할머니 손녀 딸 17살이야. 어두울 때 절대 안 다니고 밥도 매일 할머니보다 많이 먹어. 할머니 나 친구 진짜 많아. 다 착한 친구들이니 나 신경 쓰지 말고 아프지 마셔. 그만 걱정하고, 내 걱정 하느라 잠 설치지 말고 이젠 일찍 자야 해. 그리고 맨날 할머니 집 앞 돌계단 앞에서 잠이 안 온다는 핑계로 나 오기 1시간 전부터 앉아있는 거 다 아니까 이제 그만 편히 자 알겠지?

맨날 손녀딸 공부 잘한다고 자랑한다며? 얼마 전에 24층 아주머니께서 얘기하시더라. 누가 보면 1등이라도 한 줄 알겠어. 내가 공부 열심히 하는 거 할머니 덕분이야. 나 공부 너무 하기 싫었는데 맨날 우리 할머니 돈 아깝다고 더운데 긴팔 입고 음식점 가면 물티슈 챙겨오는 거, 돈 때문에 먹

고 싶은 거 안 먹는 게 싫었어. 난 그게 싫어서 공부 한 거야.

할머니 난 누구보다 빨리 성공해서 할머니가 돈 걱정 안 하고 두 발 다 뻗고 자게 해주고 싶어. 할머니 평생 못 해본 비행기도 타고 돈 아깝다고 한 치킨도 종류별로 시켜서 우리 배 터지게 먹자. 돈방석은 아니라도 할머니가 못 해본 거 할머니 손녀딸인 내가 돈 벌어서 눈치 안 보게 해줄게.

세상에는 쉬운 게 없지만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는 할머니 말이 다 맞는 것 같아. 때로는 정말 너무 힘들더라. 그래도 이 세상한테 한번 덤벼 볼게. 끝까지 붙어서 안간힘 써 볼게. 남들보다 더 노력해서 할머니한테 행복을 안겨줄게. “세상에서 나쁜 사람은 되지 말거라”, “거짓말 치는 사람은 되지 말라.”는 할머니 말 나 다 지키고 있어. 다 새겨듣고 나 정말 멋진 어른이 되고 싶어. 그때까지 기다려 줄 거지?

그리고 할머니 나 중학교 3학년 체육대회 한 날, 그 날 할머니가 보러 온다고 했었는데 오지 말라고 원래 가족들 오면 다 나가라고 한다는 말 거짓말이야. 그 날 차라리 할머니 손 잡고 같이 갈 걸 그랬어. 그날따라와

그런지 할머니 그날 신호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잖아. 체육대회 도중에 할머니 폰에서 들리는 응급실 직원의 목소리에 나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할머니한테 학교를 오라고 했으면 그 길은 가지 않았을 건데 지나고 나니 다 내 잘못인 것 같아.

이날 체육대회 끝나고 집으로 걸어가 집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 방에 들어가 할머니 이불 덮고 진짜 소리 내서 울었어. 그날따라 왜 이불에서 어찌나 할머니 냄새가 나던지... 다행히 병원에 내가 갔을 때 나 기억해 줘서 고마워. 내 이름 불러줘서 고마워 할머니. 내가 할머니한테 이제 체육대회 오지 말라는 말 절대 안 할게. 손잡고 같이 가자. 친구들도 보여주고 구경도 시켜줄게. 거짓말도 안 하고 할머니 말 잘 들을게. 꼭 커서 우리 둘이 손잡고 비행기 타자.

할머니 편지 쓰다 보니 후회되는 게 정말 너무 많아. 난 후회하는 거 정말 싫은 데 할머니한테 못 해준 게 가슴에 찡하게 남아. 이때까지 내가 할머니한테 받은 사랑 내가 다시 다 돌려줄게요. 우리 할머니 글 못 읽어서

맨날 나보고 우편물 읽어 달라 하면서 손녀딸 편지는 읽을까 모르겠네?
할머니 내가 글 가르쳐 줄 테니까 꼭 읽어야 해. 꼭 건강하게 오래오래 내
곁에 있어 줘야 해. 할머니는 내 인생의 영원한 친구야. 할머니 너무 사랑
해요.

2019년 5월 15일
할머니 손녀 딸 민정 올림

하민정 | 부산 삼정고등학교 1학년 | 부산시교육감상 수상작 ■

나의 다리가 되어 준 엄마

사랑하는 엄마에게

엄마, 안녕! 엄마한테 편지를 오랜만에 써보는 거 같네. 초등학생 때는 그래도 몇 번씩 썼었는데 크면서 편지를 더 잘 안 쓰게 됐던 것 같아.

엄마 여태까지 나 키우면서 힘든 적 많았지? 무뚝뚝하고 아들 같은 딸이라서 애교도 없고 엄마한테 기쁨을 줬는지 모르겠네.

엄마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 다 해주려고 하고 항상 내 편이 되어주고 내가 강하고 바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 것 같아.

엄마가 내 나이일 때 한여름에 나를 고생하면서 낳았잖아. 내가 걸어 다니지 못하고 아픈 딸이 되어버려서 얼마나 당황스럽고 날벼락 같았을까? 긴 암흑 터널과도 같은 병원 생활에 얼마나 막막했을까?

엄마의 22살 아니 20대 청춘을 딸 병간호에 모두 쏟아부을 수 밖에 없었겠지. 타지 병원 생활에 힘이 들어도 내색조차 할 여유도 없었겠지. 좁은 간이 병원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는 순간에도 엄마의 온 신경은 모두 나한테 있었을테니까.

내가 병원 생활하다가 어느 날 엄마한테 “왜 나는 이렇게 아파야 돼?”라고 물었다고 했잖아. 그땐 내가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어. 내가 그렇게 물어보면 엄마 마음이 무너질지도 모르고 말이야.

몇 년간 병원 생활하다가 퇴원하고 나서도 내가 조금이라도 아파서 올면 새벽이라도 바로 무궁화 기차 타고 서울 병원으로 달려갔지. 기차 안에서도 엄마는 나를 업은 채로 도착할 때까지 앉지도 못하고 내내 서 있었어. 기차뿐만이 아니었지. 정말 급할 때는 비행기도 타고 병원으로 갔었지.

엄마! 내가 엄마 껌딱지여서 다른 사람 품에는 가지도 않고 울고 엄마한테만 붙어 있어서 엄마만 더 고생시킨 거 같아. 만약에 지금 내 나이에 나 같은 딸이 있었으면 나는 엄마가 나한테 해줬던 것처럼 해줄 수 있을까? 솔직히 확신도 없고 자신도 없어.

내가 아파서 한참 동안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될 때 내가 병원 매점에 있는 과자를 계속 먹고 싶어 했는데 엄마가 그 모습이 안쓰러워서 먹지도 못

하는 과자를 사줬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과자를 계속 끌어안고 있어서 다 부서지면 엄마가 새로 또 사주고 사줬었어.

엄마가 정말 서럽게 울었던 때가 내가 장애 판정받던 날이었다고 했잖아. 나는 엄마가 무슨 감정이었는지 감히 상상도 못하겠어. 엄마가 내 목숨은 내 다리랑 맞바꾼 거라고 그랬잖아. 내가 병원 생활을 오래 해서 못 견게 된 거니까. 그런데 나는 엄마를 원망해본 적도 없고, 지금도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

솔직히 나는 우리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내가 장애인인지도 몰랐어. 초등학교 입학할 결정할 때도, 일반 학교 갈지 특수학교 갈지 많이 고민했었잖아. 나는 일반 학교에 가고 싶어 했고, 엄마는 특수학교에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다투기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특수학교에 입학하기를 잘한 것 같아. 내가 대구보건학교에 입학하지 않았으면 내가 만나 뵈었던 그리고 지금 계시는 좋은 선생님들 착한 친구들을 못 만났을 거고, 보건 학교 다니면서 얻은 값진 경험들도 못 했을 거야.

여름방학 때 엄마가 나랑 언니랑 일본 여행 보내줬잖아. 내가 티브이 보면서 일본 여행 가는 거 나오면 혼잣말로 맨날 가보고 싶다고 해서 보내준 거지? 언니랑 3박 4일 동안 여행하는 동안 엄마 선물은 사오지 말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구경 많이 하고 오라는 엄마 생각이 나서 너무 미안했어. 엄마는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봤잖아.

나는 요즘 엄마 건강이 걱정이야.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일하고 더운 날은 더워서 걱정이고 추운 날은 추워서 걱정이야.

엄마도 엄마이기 전에 여자인데 나 때문에 엄마로서의 인생만 살게 하는 거 같아. 내가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하는 건 다 엄마가 노력하고 애쓴 덕분이겠지?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꼭 특수교사 돼서 엄마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선물도 사주고 내가 엄마한테 받은 사랑 반이라도 돌려줄 수 있도록 할게.

엄마가 젊은 나이에 나를 낳아서 지금도 충분히 젊은 엄마이긴 하지만

엄마의 꼬부랑 할머니 모습은 상상이 안 가고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나. 그래서 나는 엄마가 천천히 늙었으면 좋겠어. 늙더라도 건강해야 돼! 우리 자매 같고 친구 같은 엄마랑 딸이 되자! 엄마 사랑해!

2019년 7월 9일
딸 가은 드림

박가은 | 대구 보건고등학교 2학년 | 부산시교육감상 수상작 ■

따뜻한 햇살 오현주 선생님

오현주 선생님께

따뜻한 햇살이 창가에 비치는 날씨 좋은 주말 아침이에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용현남초등학교 1학년 3반이었던 “권씨 집안에! 유명한 스타가 태어났어요. 민들레 꽃처럼 행복을 전해주는 권유민이 되겠습니다.”의 유민이에요. 오늘의 햇살과 너무 닮은 선생님 생각에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유독 고집도 세고 말 안 듣는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저희 엄마는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는지 몰라요. “언니는 순하고 착해서 걱정이 없는데 우리 유민이는 학교 안 간다, 숙제가 많다, 일찍 일어나기 싫다.”고 엄마를 힘들게 할 것 같다며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게 학교를 잘 다녔단 말이지요. 그건 바로바로 오현주 선생님 덕분이에요.

학급 발표가 나고 담임 선생님 이름이 학교 홈페이지에 뜨자 아파트 이모들이 “유민이는 좋겠다. 유민이네는 로또 맞았다. 우리 딸도 3반이 되었으면 좋았을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로또가 뭐고, 왜

이모들이 3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는지 잘 몰랐는데 ‘오현주 선생님 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라고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선생님! 선생님이 왜 <따뜻한 햇살 선생님>이라는 별명이 생겼는지 아세요? 선생님은 미스코리아처럼 아주 예쁜 얼굴은 아니지만 선생님의 미소는 미스코리아들이 배우고 갈 정도로 환하고 따뜻했어요.

집에서 엄마한테 혼난 뒤 학교 갔을 때 선생님은 미스코리아보다 훨씬 더 환한 미소로 “유민아! 아침밥 먹고 학교 온 거니?”하고 물어봐 주셨어요. 엄마한테 혼나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가도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만나면 제 마음은 사르르 다 녹아 버렸어요.

런 선생님의 미소를 보고 우리 반 친구 엄마들이나 심지어 다른 반 친구 엄마들도 오현주 선생님을 따뜻한 햇살 선생님이라고 하셨어요.

말썽쟁이 친구들의 마음도 이해해 주시고 운동장 모래밭에서 뛰어놀고 온 우리 3반 친구들의 양말을 손으로 직접 모두 다 털어주신 오현주 선생님. 전 그날의 장면을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집에 가서 엄마에

게도 “엄마! 우리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과 다르셔.”라고 자주자주 제가 느낀 감정을 말씀드렸어요.

늘 재미있는 활동으로 즐거운 수업을 만들어 주셨고, 준비물을 가지고 오지 못한 친구들이나 숙제를 해오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그 마음이 다칠까봐 늘 따뜻하게 타일러 주셨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얘들아! 선생님도 초등학교 다닐 때 숙제를 못해 온 적이 많았어. 그리고 공부도 잘하지 못했어. 너희들도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더 성실해지면 다 잘할 수 있어. 선생님은 너희들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어느 날 그 따뜻한 말이 듣고 싶어서 일부러 숙제를 안 해간 적도 있었답니다.

우리 반에 친구의 부모님 중에 눈이 안 보이시고 말을 잘 못 하시는 분이 있었잖아요. 그 친구의 하룻길에 항상 선생님이 같이 가 주셨던 것도 나중에 엄마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수업 후 피곤하실텐데 선생님은 부모

님을 대신하여 그 친구 집까지 데려다주고 급하게 뛰어오시다 손을 다쳐서 반깁스를 하신 적도 있었잖아요. 그땐 선생님이 출장 다녀오다가 다치셨는지 알았는데 친구집에서 학교로 급하게 뛰어오다가 그렇게 되신 거라는 것도 나중에나 알게 되었어요.

또 1학기가 끝날 무렵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모은 스티커 칭찬을 해 주신다고 <스티커잔치>도 해주셨잖아요. 스티커 갯수에 맞는 다양한 선물도 고르게 해주셨고 선생님표 떡볶이도 해 주셨어요.

리가 맵다고 하자 선생님이 설탕과 물엿을 더 넣어주셔서 아주 달콤한 떡볶이를 먹을 수 있었어요. 전 매운걸 정말 못 먹었잖아요. 그래도 오현주 선생님표 떡볶이는 맵다고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많이 먹고 싶었거든요.

선생님! 아직도 제 책상에는 선생님이 만들어 주신 1학년 앨범이 잘 꽂혀 있어요. 선생님은 우리의 생애 첫 학교 첫 학년의 생활을 놓치지 않으려고 사진을 엄청 많이 찍어 주셨어요. 이빨 빠진 우리는 늘 좋다고 ‘히

히히’ 그러면서 항상 ‘브이’를 했어요. 그 많은 사진을 다 현상하셔서 1학년이 끝날 때 선물로 주셔서 전 깜짝 놀랐어요.

사진을 찍어서 학급홈페이지에 올려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했는데 친구들마다 다른 사진을 현상하셔서 개인 앨범을 만들어 주신 오현주 선생님. 이제 철이 좀 들어서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살며 선생님의 그림자대로 예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들은 소리가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아닐 거예요. 며칠 전 엄마께 선생님 소식을 들었어요. “유민아, 선생님이 많이 아프셔서 학교를 쉬고 계신대.” 전 엄마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아니 듣고 싶지 않았어요. 선생님에게 너무나 따뜻하고 세상에 둘도 없는 선생님에게 나쁜 세포가 몸에 생겨서 수술을 하셨다는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엄마 말을 듣고 선생님이 보고 싶은 마음에, 자주 연락 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에, 아프다는 선생님 걱정에도 평소에도 감성이 풍부한 저는 눈물이 끊이지 않고 폭포처럼 흘렸어요.

왜 다른 사람에게 늘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만 하셨고,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셨던 따뜻한 선생님에게 나쁜 세포가 생겼는지 막화가 났어요. 선생님! 지금은 좀 괜찮으신지 아프지 않으신지 많이 궁금해요. 선생님이 친구들과 학부모님들께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이 ‘건강’이라는 답장으로 꼭 배달될 거예요.

유민이는 선생님 제자였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칩니다. 유민이는 선생님의 미소를 떠올리면 힘이 생깁니다. 어른들이 힘들 때 자주 하시는 말씀처럼 “이 또한 다 지나갈 거예요.”

아직 저의 꿈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아 무엇이 될까 생각 중인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의사가 되어 선생님의 나쁜 세포를 완전하게 다 없애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매일 매일 꼭꼭 기도 할게요. 그리고 오늘처럼 따뜻한 햇살이 환하게 비추는 어느날 예쁘게 성장 된 모습으로 찾아 뵈게요.

오현주 선생님이 저의 생애 첫 초등학교 첫 번째 선생님이 되어 주셨음

에 감사드리며 선생님 건강 회복을 간절히 기도하는 유민이가 편지 드립니다. 선생님이 건강하셔서 학교에 다시 오셨다는 기쁜 소식 기다릴게요. 선생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2019년 5월 17일
겸둥이 제자 유민 올림

권유민 | 인천 용현남초등학교 6학년 | 인천시교육감상 수상작 ■

새 생명을 주신 큰엄마

큰엄마께

아침마다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개인 사물함 문을 열면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저의 어깨를 감싸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저를 반겨요.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네요.

이모라고 불러야 할지 큰엄마라고 불러야 할지 정확한 명칭은 없지만 이름만이라도 그 따뜻함이 전해져 기분이 좋아져요. 제 기억으로는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셨지만 저는 한 번도 엄마라고 불러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절 낳아주신 분이 계시니 큰엄마라고 부를게요. 괜찮죠? 큰엄마~~

감사 편지를 앞에 두고 감사하다는 말로 큰엄마의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라도 제 마음을 보여드리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어요. 7살 때 제가 사회복지 시설에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입소를 하게 되었고, 그때 저는 담소폐쇠증으로 수술한 후 합병증으로 2차성 간경화가 오자 더 이상 저를 감당할 수 없었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저를 형과 동생이랑 떨어져 살게 하셨죠. 그 모든 것이 불만이었던 저는 건

드리기만 하면 폭발할 것 같은 활화산이었죠. 지푸라기 같은 희망은 간을 기증해 줄 분을 찾고 있었고, 수술비 마련을 위해 천인의 기적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사실 수술비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기증자를 찾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상황이었죠.

저는 가족이 아닌 남에게 간을 이식해주고 하는 일들은 책이나 뉴스에서나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은 제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 여겼어요. 그런데 그때 큰엄마가 기적처럼 나타나셨죠. 수술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고, 큰엄마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간을 제게 기증해 주셨죠. 하지만 철없던 저는 수술 후 제 아픔만 기억하고 큰엄마의 아픔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회복하는 기간도 욕심쟁이로 유명했죠.

제게 새 생명을 주신 큰엄마 벌써 7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저는 아주 건강하게 지내고 있고 큰엄마의 깊은 뜻을 이제야 헤아려 보게 되었어요. 큰엄마가 간을 이식해주기 위해 5년 전부터 철저하게 음식을 가려서 드

셨고 간의 건강을 위해 집중적인 운동까지 꾸준히 하셨다는 사실을 듣고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간이식을 결정 하셨을 때 가족의 반대에도 큰엄마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다고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행운아이고 제 몸에 있는 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수술을 마치고 나오실 때 가족분들에게 너무너무 죄송하고 미안했어요. 그리고 큰엄마가 장기기증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은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저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데요.

큰엄마의 바람대로 전 아주 건강해졌고 씩씩하고 밝게 생활하고 있어요. 지금도 매달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데 무사히 통과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꿈나무 축구대회를 신청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참석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리는 하지 않을 거예요.

요즘 저는 거울 속의 저를 보고 있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사진 속에 서처럼 웃고 있는 제 옆에 큰엄마가 어깨를 다독여주며 용기를 주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건강할 수 있도록 면역력제 잘 챙겨 먹고 멋진 사람으

로 성장할게요. 그리고 언제나 저를 위해 보내주신 그 뜻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살아갈게요. 고맙고, 감사하고,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2019년 6월 11일
너무 큰 사랑을 받은 민수 올림

박민수(가명) | 광주 윤림중학교 3학년 4반 | 광주시교육감상 수상작 ■

아빠.. 고맙고, 사랑하고, 미안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께

벌써 벚꽃이 지고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3개월 전 그 차갑고 냉랭했던 바람은 없고, 햇볕의 뜨거운 공기만이 제 코끝을 맴돕니다.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존댓말로 편지를 쓰니 낯섭니다. 문득 아버지 생전에 존댓말로 쓴 편지가 있었다라면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인 제 글이 오래도록 기억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기분이 듭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저는 많이 보고 싶습니다. 더 힘들어하는 엄마를 위로하느라 빨리 일상에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필요한 일들을 우리끼리 해내기 벅찰 때 너무 서글퍼 눈물이 납니다. 저는 아직 많이 어린가 봅니다.

허니버터칩이 한창 유행하던 때에 아빠는 수술을 했지요. 철없게도 초등학교 5학년 이었던 저는 12시간의 수술을 버티지 못하고 자고 놀고 먹기만 했습니다.

수술 직후 아빠 얼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병원의 위치 또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였는지, 제 기억 속 아빠의 얼굴은 아프고 마른 얼굴입

니다. 어릴 때 정말 사소한 기억들은 아픈 아빠가 다 잡아먹었나 봅니다.

그래도 아픈 와중에 혼내던 아빠가 그립습니다. 내가 먹는 걸 보는 게 제일 행복하다던 아빠 미소가 그립습니다.

뇌 구석 한자리 깔고 눌러 앉아있나 봅니다. 다 잊어도 그날들의 기억은 아직 향기가 납니다.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커서 농띠 될 거라던 저는 이제 서야 공부도 재미있어졌습니다. 성적도 10점이나 올랐습니다. 3개월만 더.. 1시간만 더.. 빨리 공부할 걸 후회가 됩니다.

왜 이렇게 자꾸 후회가 되고 아쉬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모든 걸 다 해줬고 저는 못 해드린 게 많아 자꾸 아쉽기만 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제 아빠에게만 주지 못한 사랑을 엄마에게 언니에게 배로 해 줄 겁니다. 아버지가 행했던 것들을 가르쳐줬던 사랑을 차고 넘쳐 흘러갈 때까지 베풀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리운 만큼 더 굳건히 살겠습니다. 제가 행복한 것이 아버지의 행복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아픔도 슬픔도 없는 곳에서 부디 이루지 못한 꿈들 다 이루고 계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2019년 4월 30일
민아 올림

신민아 | 울산 약사중학교 3학년 | 울산시교육감상 수상작 ■

이제 선생님의 그 차
'똥차'가 아니라

꿈을 실어다주는
'꿈차'라고 불러야 할까 봐요.



할아버지의
마음의 눈이 되어 드릴게요.

경기 늘푸른중학교 1학년 엄윤선

꿈을 실어다 준
선생님의 똥차

충북 장락초등학교 6학년 김예하

아버지의
오른팔이 되고픈 딸

충남 천안두정고등학교 1학년 차나현

내 삶의 밝은 빛,
내 친구

전북 이리남성여자중학교 1학년 이연희

분홍돼지 딸이
수퍼맨 아빠에게

전남 목포삼학초등학교 4학년 천지혜

할아버지의 마음의 눈이 되어 드릴게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우리 박흥근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손녀딸 윤선이에요! 그동안 초등학교 졸업식을 마치고 중학생이 되어 새 일상에 적응하기 바쁜지 안부를 자주 여쭙지 못했네요. 많이 보고 싶어요. 당장 할아버지 댁에 달려갈 수 있다면 좋으련만 그러지 못해 속상하네요. 감사한 사람에게 편지를 쓰라고 할 때 할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할아버지는 항상 묵묵히 저를 응원해 주시고 변하지 않는 제 편이 되어주시는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고마운 분이세요!

일단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제게 좋은 일이 생길 때 누구보다 기쁜 표정으로 “우리 박사님~”이라며 뿌듯해해주시는 모습은 언제 떠올려도 참 기분이 좋은, 모든 게 귀찮은 슬럼프가 왔을 때 제 자신을 북돋아 주기 좋은 원동력이 되거든요. 할아버지처럼 제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건 무엇보다 커다란 의미를 주더라고요. 저에게 열심히 살아갈 모터를 달아주셔서 감사해요.

할아버지는 대통령상을 받으실 정도로 용감한 경찰이었지만 심장마비

로 인해 후천적으로 시각을 잃으셨죠. 그 이후로 쪽 시각장애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힘겹게 살고 계세요. 저는 할아버지를 보면서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이 세상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어디를 가도 할아버지처럼 시력을 잃으신 분이냐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분, 걸을 수 없어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분을 당연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지 않더라고요. 세상은 오직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장애인들이 어깨 펴고 당당히 돌아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어린 제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정말 아무것도 못 보는 거야?”라며 불신의 눈빛으로 할아버지 앞에서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어 댔던 기억이 있어요. 죄송해요. 철없던 저는, 할아버지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알지 못했어요. 역시 저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도 장애인들의 상처를 그리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까지 위해주는 세상으로 바꾸어보려고 해요. 약자들이 어우러지는 것이 당연히 여겨졌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 만약 세상이 바뀐다면 이제

장애는 하나의 개성으로 받아드려 질 수 있겠죠?

저는 일단 할아버지가 이렇게 저희 옆에서 살아계시고 가장으로서 가족들 옆에서 큰 힘이 되어주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사고가 났던 그때 의사들은 할아버지와 이별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죠. 할아버지는 흔히 '시한부'라고 말하는 환자로 여겨지셨어요. 그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찍은 가족사진은 아직도 그때 모습 그대로 아주 커다란 액자에 걸려있죠. 할아버지는 기적을 안 믿으셨어요. 의사까지 절레절레 고개를 저은 가능성을 극복하고 다시 이렇게 살아나셨잖아요.

그 이후로 시력과 연결된 신경은 끊기게 되었지만 가장 소중한 목숨만은 끝까지 놓지 않고 계셨죠. 끝까지 버텨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집의 기둥처럼 든든한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많이 흔들렸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어떤 모습이든 저는 할아버지를 사랑해요. 후회나 절망이 할아버지를 괴롭힌다면 가차 없이 털어 내주세요. 후회나 절망같이 부정

적인 감정들은 강한 우리의 한 줌 거리도 되지 않아요.

할아버지, 아직까지 믿고 싶지 않고 절망적이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에 생긴 깊은 상처가 무뎠지고 하루빨리 감쪽같이 흔적을 감추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제가 할아버지를 도울 수 있을까요? 음, 세상을 살피려면 눈으로 보는 것만이 방법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모든 것을 눈이 아닌 마음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가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해요. 대체 어떻게 마음으로 볼 수 있는거냐구요?

세상의 다채로운 색깔과 자연, 평범한 거리와 밤풍경,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의 조마조마함과 희열, 가끔씩 고개를 비추는 절망감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그럴 수 있어요.

음, 상상해보세요. 고개를 드니 아주 감감한 암흑이 있어요. 그 티끌 하

나 없는 암흑에 별자리가 수놓아져있어요. 염소를 닮은 염소자리, 딱 붙어 있는 것이 찰 사이좋은 쌍둥이자리, 어여쁘게 머리를 늘어뜨린 처녀자리. 모두 진주처럼 하얀빛을 받아 빛나고 있어요. 엇! 저기 별뿔별도 떨어지네요. 별뿔별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연한 파란색 광택을 내며 밤하늘을 휩 지나가고 있네요. 어때요? 제가 방금 설명한 것은 밤하늘이에요. 제 묘사를 들으니 어느새 눈앞에 밤하늘의 풍경이 그려져 있지 않나요?

거봐요, 제 말이 맞죠? 할아버지가 시력을 잃더라도 귀와 마음으로 온 세상 구석구석을 볼 수 있어요. 그러려면 일단 제가 할아버지의 뒤통까지 예쁜 일상들을 소중히 눈에 담아놓을게요. 하나도 빠짐없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재잘재잘 수다로 전해드릴게요. 그렇게 진심을 담아 제가 본 아름다운 날들을 전해드린다면 할아버지 마음속에는 어느새 여러 가지 색깔들의 풍경이 피어나고 있을 거예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전율을 느끼면 눈으로 본 것 그 이상의 감동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역시 할아버지는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 할아버지 마음속에는 감히 아무도 엿볼 수 없는 세상이 지어져 있었던 거죠. 할아버지 눈앞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들이 그 자태를 뽐내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할아버지는 마음으로 예쁜 일상들에게 인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눈으로 보지 못하더라도 마음으로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고 그 웅장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던 거죠! 맞죠? 제가 할아버지 손을 꼭 붙들고 그 세상을 더 풍성하게 꾸려나가 볼게요. 기대하셔도 돼요!

할아버지. 그날 기억나세요? 우리 외가 온 가족이 제주도를 놀러갔던 작년 여름이요. 그때 정말 오랜만에 동네를 떠나는 할아버지가 기도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손주들, 딸들, 아들, 마누라 모두 탈 없이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수년 만에 비행기에 탄 할아버지가 티끌 하나 없이 맑은 웃음을 지으시는 걸 보고 많은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렇게나 좋아하시는데 그동안 할아버지와 여기저기 돌아다닐 생

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 죄송했어요. 그렇게 들뜬 마음을 안으시고도 가족의 안전을 가장 먼저 걱정해 주셔서 고맙기도 했고요. 할아버지와 정말 재밌게 놀다 오겠다는 다짐이 제 마음을 지배했었죠. 앞으로 우리 두 손 꼭 잡고 바깥바람 많이 쐬러 나가요!

할아버지, 하지만 앞으로 가족 여행 많이 다니고 마음 속의 눈을 만들어 줄 많은 얘기를 나누려면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조금이라도 몸이 안 좋으시면 참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시고 건강검진도 주기적으로 받으셔야 해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니까요. 제발 끝까지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저희 가족을 지켜주세요.

아,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저는 할아버지가 참 자랑스러워요. 기억력이 최상이라 단축번호 1번부터 200번까지 달달 외우고 계시는 우리 할아버지. 제가 무슨 실수를 해도 그럴 수 있다며 제 편을 들어 주시는 우리 할아버지. 제가 성공하면 마치 할아버지가 성공하신 것처럼

행복해 주시는 우리 할아버지. 이런 할아버지가 제 할아버지라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당당하게 어깨 짝 피시고! 엄윤선 할아버지답게 자신감 넘치게 살아가세요.

이제 편지를 끝마칠 때가 된 것 같네요. 할아버지, 곧 찾아뵈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기다려주세요! 약속! 너무너무 사랑해요. 많이 그립고 보고 싶어요. 저도 할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항상 할아버지를 응원하고 있어요. 다시 찾아뵈면 할아버지 핸드폰의 201번 단축번호도 추가해드리고 카카오톡 쓰는 법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만 편지를 마칠게요. 사랑하는 할아버지, 더위 조심하세요!

2019년 6월 5일
할아버지의 가장 아름다운 눈이 되어주고 싶은 손녀딸 엄윤선 드림

엄윤선 | 경기 늘푸른중학교 1학년 | 경기도교육감상 수상작 ■

꿈을 실어다 준 선생님의 뚝차

김창훈 선생님께

김창훈 선생님 안녕하세요?

누구에게 감사편지를 써서 마음을 전해볼까 생각하니 당연히 먼저 떠오르는 분은 부모님이셨어요. 하지만 엄마, 아빠한테는 제가 재잘거리를 좋아하고, 매일 만나니 고마운 일도 속상한 일도 얘기할 기회가 많지만 선생님은 다른 학교로 가셨고, 제가 학교에만 가면 발표하거나 마음을 표현할 일이 있을 때는 쑥스럽고 어색해서 마음을 전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았어요. 지금 이렇게나마 3학년 때 뚝차와 함께 등장한 선생님께 고마움을 전하려고 해요.

학교와 교실에서 매일 볼 수 있는 분이 선생님이지만 학교 밖에서도 선생님을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을지는 처음 알았어요. 그건 바로 뚝차 덕분인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학교에 올 때 타고 오던 봉고차를 자꾸 뚝차라 불러서 죄송해요. 봉고차 뒷 쪽에 구멍이 조금 난 곳의 색이 벗겨지고 녹슬어 우리는 뚝차 지나간다고 깔깔거리며 남자 아이들도 엄청 재미있어하고 좋아했어요.

선생님께서 1년 동안 뚝차를 타고 날라다 주신 추억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학교 오는 날이면 선생님께서 뚝여놓은 보리차 덕분에 더운 여름 날에는 체육하고 나서도 냉동실에서 꺼내주신 시원함이 묻어있는 보릿물은 꿀맛 같았어요. 눈 오는 날은 선생님께서 직접 만들어 준 비료푸드 썰매타고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서로 끌어주기도 하고 경사진 끝에서 승승 내려올 때도 엄청 재미있었어요.

학교의 언니 오빠들이 다른 장소의 큰 건물에서 공연하는 날에 우리가 관람객으로 초대되어 가고 싶어도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이 학교 끝나고 픽업해서 데리고 가줄 수 있어서 저는 그 시간에 엄마 아빠가 일가서 데려다줄 수도 없고, 엄마가 차가 없어서 구경 가기도 힘들었지만 그럴 때마다 선생님이 뚝차로 데려다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선생님과 가장 큰 추억이라고 하면 뒤풀이해도 우리가 직접 영화를 찍은 일이에요. 학예발표회 때 율동이나 노래를 부르는게 아니라 국어시간에 우리가 직접 만든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지요. 총감동, 음향감독,

조명감독, 스텝과 배우들... 영화 하나를 찍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의 역할이 있어야 하는지 처음 알았어요. 영화 제목도 우리가 정해야 해서 의견을 모아야 했는데 제가 생각해서 발표한 “꿈같은 실제” 제목을 친구들이 좋다고 해서 영화 제목으로 사용될 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하는 내 마음을 담아 제가 만들고 준비한 번개모양 식탁천을 준비해간 것들도 영화 찍는 장면 장면에 쓰여서 제가 맡은 일도 잘 체크 해놔야 다음 장면을 찍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선생님 똥차로 이동해 분식집에서 떡볶이 먹는 장면도 찍고, 놀이터, 친구네 집 등을 이동하며 드디어 영화가 제작되었고, 학예회 때 무사히 잘 상영했고, 그 이후에도 영화제작 소문이 좋게 나서인지 제천의 교육지원청에서 주최한 행복 영화제에도 우리가 초대되었잖아요? 우리가 만든 영화는 유튜브 검색에 꿈같은 실제라고 치면 첫번째 화면으로 올라오고 오늘 보니 조회수가 2150회나 되는 영화로 쉽게 볼 수 있는 영화가 되었어요.

이제 선생님도 다른 학교로 가셨고, 3학년 친구들도 다른 반이 되었고, 그 추억을 날라다 준 똥차도 고장 나서 이젠 선생님께서 다른 차를 타고 다니시지만 그 때 그 똥차로 우리 친구들을 태워 숲으로 공원으로 나가서 자연의 소리도 듣게 해주고 꿈이었는지 그게 실제였는지 싶을 정도로 많은 추억을 배달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제 선생님의 그 차는 “똥차”가 아니라 꿈을 실어다 주는 “꿈차” 라고 불러야 할까 봐요.

선생님, 정말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에서도 매일 볼 수 있을 것 같은 똥차, 꿈차 한대 더 구입해 보시면 어떨까요? 또 타고 싶어합니다. 아이들과 너무 많이 뛰어노느라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세요.

2019년 6월 25일
예하 올림

김예하 | 충북 장락초등학교 6학년 | 충북교육감상 수상작 ■

아버지의 오른팔이 되고픈 딸

존경하는 아버지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지의 오른팔이 되고 싶은 나현이에요!!

저는 오늘 아버지에게 평소에 하지 못한 말을 이 편지에 담아 전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남들과 약간 다르게 아버지와만 살고 있어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두 분에게 받는 사랑은 못 받을지라도 아버지에게 이 커다란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이쁘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는 저에게 항상 아빠처럼만 살지 말라고 하셨죠. 저는 커서 아버지의 힘들게 사신 그 노동의 대가를 제가 다 보상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의 엄마라는 큰 빈자리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채워야 한다는 것을 다 알아요. 두 동생들의 케어도 어렵고 힘들게 버신 돈의 지출도 커서 아버지의 몸은 항상 괴롭고 슬퍼하실 거 같아요.

저는 공부와 엄마의 뉘이라는 두 마리 토끼는 다잡지 못하지만 되도록 더 노력해서 자랑스러운 딸이 될게요. 저는 커서 꼭 군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멋있게 우리 집을 세우고 싶어요. 아버지가 비록 지금은 힘드시더라도 미래에는 다른 가족들보다 훨씬 더 행복한 그 날이 올 때까지 더더욱

열심히 할거예요.

아버지는 저를 불러 “네가 우리 집을 살려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담감 덕분인지 좀 많이 힘들어요. 제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요? 그래도 옆에 계신 아버지 덕분에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저의 앞길을 항상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려고요. 학교에서 들은 명언이 하나 생각나요. “좋은 집이란 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조이스 메이나드께서 말씀하신 건데 저희도 똥똥 뭉쳐서 최고의 하나라고 불릴 정도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제가 못했던 축스러운 말을 담아 이 편지로 전해드려요.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늘 받기만 한 사랑 제가 보답할게요. 아빠의 딸이어서 항상 행복하고 다시 태어나도 아버지의 딸로 태어나고 싶어요. 사랑해요 우리 아빠.

세상에서 하나뿐인 딸 나현 올림

차나현 | 충남 천안두정고등학교 1학년 | 충남교육감상 수상작 ■

내 삶의 밝은 빛, 내 친구

내 친구에게

오랜만이네. 편지를 쓰라고 했을 때 너밖에 떠오르지 않았어. 있지 2학년 때 나 왕따 당한거 기억나? 있지 난 말이야 그땐 내가 죽어버렸으면 사라져버렸으면 하고 바랐어. 그땐 당혹스러웠어. 초등학교 2학년 때 너랑 나랑 같은 반이었을 때 개네들이 나 왕따시켰을 때 너 처음에 날 안 도와줬었잖아. 그리고 1학년 때 친했던 애들도 다 모른척 해서 처음에 집에서 평평 울었어. 친했던 친구들한테 배신당했다는 심정을 친구 많은 년 모르겠지.

그래서 당하다가 지쳐서 선생님께 말씀드렸지만 그러면서 크는거라고 하신 선생님이 너무 싫었어. 그리고 엄마한테 말씀도 드렸는데 무시하시더라. 그래서 참다참다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날 걱정 해주는 사람 없고 이런 내가 죽어버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나쁜 선택을 하기도 했었어.

3학년에 올라갔어도 괴롭힘은 계속됐고, 심리 상담도 받아보고 했지만 괴롭힘은 계속 더 심해졌어. 그런데 네가 3학년 때 날 도와줬었잖아. 그게

너무 나한테 고마웠었어. 네가 나한테 “계속 이려고 살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라고 말해줬었잖아. 내가 항상 듣던 말은 “개찢따”, “뒤져버리지 왜 사냐” 였어. 그런데 그렇게 말해준 건 네가 처음이어서 눈물이 나오더라.

지금도 내 손목에는 조그맣게 흉터가 남아있어. 하지만 이 흉터는 널 의미하기도 해. 나는 이 흉터를 너와 나의 운명의 고리라고 생각하고 있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겐 네가 가장 소중한 사람 항상 비난받고, 환영받지 못하는 나에게 유일하게 말을 걸어 줬던 너였지. 네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았어. 너와 내가 만난 게 기적이고, 넌 나에게 특별하다는 걸 깨달았어.

하지만 너도 다른 애들과 싸우고 힘든 적 많이 있잖아? 하지만 나는 가진 게 없었어. 따뜻한 위로 한마디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말을 걸 수가 없었어. 그렇지만 너는 계속 내게 말을 걸어 줬고, 같이 다녀줬어.

난 말이야 세상에 그 누구도 내 편이 없는 줄 알았어. 하지만 니가 있었고 넌 내 삶에 밝은 빛이었어. 그래서 세상 모든 것들이 너를 위협하는 적이어도, 난 그때처럼 네가 날 구해줬던 것처럼 나만은 반드시 너를 지켜

줄 테니까 너는 늘 하던 것처럼 그곳에서 웃고 있어줘. 지금까지도 너는 내게 반짝반짝 가장 밝게 빛나는 별님이니까.

그리고 나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왕따 당하는 아이에게 힘내라고 손을 내밀어 주고 말을 해줄 수 있어. 네가 없는 세상은 끔찍하고 넌 내 심정을 알까? 네가 그때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생활도 꿈꿀 수 없었겠지. 지금 나는 좋아. 지금 내 친구들을 너에게 소개시켜 주고 싶어.

친구야!! 빨리 일어나! 네가 아직 의식이 없어서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너에게 문자를 할 수 없지만 난 항상 널 생각할거야. 빨리 지긋지긋한 병원에서 나와서 나랑 같이 자전거랑 인라인도 타고, 고양이 카페도 가고 하자. 꼭 또 만나자.

연희가

이연희 | 전북 이리남성여자중학교 1학년 | 전북교육감상 수상작 ■

분홍 돼지 딸이 슈퍼맨 아빠에게

듣직한 우리 아빠에게

아빠 안녕하세요? 저 아빠 둘째 딸 분홍 돼지 지혜예요. 아빠께서 저에게 붙여 준 별명이 분홍 돼지잖아요~^^ 제가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아빠께 지금까지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함을 편지를 통해 전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아빠께 감사하다고, 좋아한다고, 표현을 못 해서 미안해요. 아빠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전 아빠를 무척 사랑하고 좋아해요.

그리고 아빠는 늘 가정적이라고 주위에서 늘 말하고 하는데 아빠께서는 엄마, 언니, 나를 늘 많이 걱정해주시고, 아껴 주시니 너무 좋고 감사해요. 일등 아빠예요. 아빠께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 데 제가 편지로 다 표현할 줄 모르겠네요.

아빠는 언니와 내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우리집 의사가 되어 치료를 해주곤 하지요. 이상하게 그래서인지 나는 아빠만 보면 자꾸 아픈 곳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엄마가 “너는 아빠만 보면 아프냐?”라고 하시며 웃으시곤 하지요. 우리 집 크고 작은 것도 푹푹툭툭 고치고, 힘을 쓰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해내는 우리 아빠는 슈퍼맨 같아요. 어떤 일에도 끄떡없을 거 같아요.

아빠께서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한 지역의 면사무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셨다고 했죠. 아빠께서는 상하수도 일과 도로 설계일을 하셨고, 비정규직이라 퇴근도 정해진 시간에 하셔서 퇴근 후에는 늘 가족과 시간을 보내주셔서 좋았어요. 친구들도 자주 만나지 않으시고, 집이 좋다면 늘 집에 자주 있는 아빠가 싫지는 않았어요.

아빠가 어느 날 책을 들고 오셔서 공무원 시험을 보신다고 하셔서 “아빠, 공무원이 되면 좋아요?” 했더니, “우리 지연이 지혜 공부 가르치려면 좋지.”라고 하셨잖아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아빠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셨고, 아빠 엄마도 무척 좋아하신거 보고 저도 좋았어요. 우리 가족은 아빠 면접 때 입을 양복과 구두도 함께 사러 다니고 즐겁고 행복했지요.

아빠께서는 우리 가족과 떨어져 지낸 적이 없는데 좀 멀리 있는 곳에

발령받아서 그 지역 회사를 다니게 되어 가족과 가끔씩 떨어져 있게 되었
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 아빠께서는 일도 많이 힘들어 하시고, 가족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힘들셨는지 모습이 점점 힘들어 보였어요. 아빠를 볼
때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이고 우울해 보였어요.

몸이 점점 안 좋아져서 아빠는 병원을 가셨고, 여러 가지 검사도 받았
는데도 좋아지지 않아 정신건강병원을 가니 우울증이 심하다고 1년을 치
료를 받으셔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슈퍼맨 같았던 아빠가 우울증이라니 그 모습을 본 저는 많이 속상 했
어요. 저에게 늘 씩씩하고 용감한 아빠였는데 하루 아침에 아빠가 힘들어
하실지 몰랐고, 치료까지 하셔야 한다니 속상 했어요.

지금은 아빠께서 치료를 잘 받고, 약을 드시면서 점점 좋아지시기는 하
셔서 전 조금이나마 안심은 되었지만, 아직도 아빠의 얼굴이 어두운 걸
보면 아빠께서 빨리 나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아프신대도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셔서 돈을 버

시는 우리 아빠가 최고예요. 아빠께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치료받
고 좋아져야 한다고 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연예인들도 우울증으로 자살하게 되는데 정말 우울증이 무섭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빠는 우리를 위해 고생하시는데 저는 아빠께 받기만 하고 헤드리는
것도 없는 제가 싫었어요. 이런 저에게 아빠는 늘 괜찮다며 “다음에 하면
되지.” 라고 말씀하셨죠. 어버이날 언니와 저의 편지를 받으시고, 어떤 선
물보다도 좋아하셔서 감사했어요.

더 말씀 잘 듣고 지금처럼 학교에서 모범생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
드릴게요. 아빠도 힘내서 치료 잘 받으세요. 우리 아빠 핫팅!!!

아빠와 함께 있으면 장난도 쳐 주시고 많이 놀아주시는데 지금은 아빠
께서 많이 야근도 하시고, 힘들어서 못 놀아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
전처럼 아빠와 많이 놀고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편지를 쓰다 보니
아빠께 작지만 감사한 일들도 많아요.

언니보다 제가 얼굴이며 성격을 아빠를 많이 닮았잖아요. 고집불통 성격에 어렸을 때 아빠께 벌도 많이 서고 꾸중도 많이 들어서 그때 평평 울고 싶었는데 지금 크고 나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빠께서 나를 혼내시는 건 바른 아이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라는 걸요.

소중하고 듬직한 우리 아빠!!! 약 잘 드시고 치료 잘 받으셔서 우울증 빨리 나오시고, 다시 기운 내셔서 우리 가족에게 씩씩하고 용감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저는 우리 아빠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은 다시 우리 곁에서 일하시지만 일하시다가 어느 지역으로 발령이 나도 우리 가족 너무 걱정마세요.

아빠가 걱정되고, 사랑해주시는 마음에 감사의 편지를 써 보았는데 표현이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아빠의 귀여운 분홍 돼지는 효도하는 딸이 될게요~!!

아~~그리고 아빠!! 밤에 잘 때 잠 잘 자라고 등 긁어주시고, 손마사지 해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잠이 잘 와요. 아빠! 얼굴을 밝게 하시고 늘 웃

으세요.^ 그래야 복이 와요. 늘 건강하시고, 우리 가족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요. 사랑해요 아빠!!

2019년 7월 18일
아빠의 분홍돼지 지혜울림

천지혜 | 전남 목포삼학초등학교 4학년 | 전남교육감상 수상작 ■

선생님께서 일기장에 적어 주셨던 댓글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돼 줬는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매주 일기를 쓸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월요일에 선생님께서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실까?
하고 웃은 적도 있습니다.



할머니의 장미꽃

경남 충무고등학교 1학년 김민지

나의 짱친 나선희 교장 선생님께

광주 진남중학교 3학년 정소청

아빠에게 전하는 나의 진심

경북 하양여자고등학교 2학년 김두리

내게 세상을 보여준 언니에게

제주 동초등학교 6학년 고민서

내 마음 속 1순위 엄마

강원 체육고등학교 2학년 장민정

댓글은 사랑을 싣고

세종 종촌중학교 1학년 박인서

가슴에 눈물바다를 가진 우리 엄마께

대전 내동초등학교 3학년 이지민

아빠에게 전하는 나의 진심

사랑하는 아빠에게

아빠 안녕? 이 편지를 쓰기 전날까지도 싸웠지만 그래도 그건 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세요. 사춘기 딸이 투정이라 하면 그나마 변명이라고 할 수 있는 구실이 생기겠죠.

이 한국땅에서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시겠죠. 그런 아빠 못지않게 혼혈인인 저도 힘들고 그래서인지 더 짜증만 내는 것 같아요.

갈색머리 갈색 눈동자 쌍커플 등 누가봐도 혼혈 같은 저의 모습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았지만 그만큼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초등학교 때 겪은 학교폭력, 한 아이에게 들은 잡종이라는 말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마음을 붙잡고 늘어져요.

이런 일들 때문에 더 위축되고 한국말도 못하는 아빠를 부끄러워했던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 이 편지를 빌려서 아빠에게 미안했던 일들을 적고 싶습니다. 친구들이, 남들이 쳐다볼까 부끄러워서 아빠는 차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던 일, 마트나 도서관에 같이 가는 날에는 하루 종일 차에서 짜증냈던 일 등 외국인인 아빠가 무의식적으로 창피하

다고 느껴서 제가 했던 모든 행동들이 너무 너무 죄송해요.

야영이 끝나고 돌아오던 날 아빠에게 차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짜증냈던 날 그날 밤 엄마와 이야기를 하면서 들었던 말이 제 가슴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두리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라는 아빠의 말이요. 싫어하는게 아니에요. 나쁜게 있다면 아직 어린 저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차별에 위축되게 만드는 여러 사람들의 태도 그런 것들이겠죠.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더 있을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전 자신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게요. 어떤 말과 시선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할게요. 마지막으로 부끄러워서 쉽게 하지 못한 말을 전하려 해요, 아빠. 사랑합니다. Ich liebe dich Papa.

아빠딸 두리 올림

김두리 | 경북 하양여자고등학교 2학년 | 경북교육감상 수상작 ■

나에게 세상을 보여준 언니에게

언니에게

안녕,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건 오랜만인데~ 누구한테 쓸지 몰라서 고마운 사람들을 차례로 적어 내리는데, 가장 마음에 와닿는 건 언니더라.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언니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어.

생각해보면 평소에 가볍게 “고마워”라고 한마디는 정도는 했지만 정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은 많이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고마워! 평소에 방을 같이 쓰고, 잠을 같이 자면서 우리는 참 많은 얘기를 나눴지. 여러 사회적인 문제들부터 고민 상담 까지..

언니 덕분에 나는 전부터 세상을 보았고 성장할 수 있었어. 2016년의 나보다 2017년의 내가, 2018년의 나보다 2019년의 내가 더 강해진 것과 더 자라난 것이 느껴져. 물론 다른 주변 사람들의 영향도 있지만 나는 언니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 사실 언니가 멋있어 보여서 줄곧 언니를 따라 했었는데, 이젠 진짜 ‘나’를 찾아가고 있어.

같은 방 안에서 둘이 깔깔, 킁킁 대다가 엄마한테 혼나기도 하고, 서로 놀리기도 하면서 장난도 치고 언니랑 있으면 정말 좋아~~^^ 물론 그러다

가 싸우기도 했지만 우리는 싸워도 금방 화해하니까 괜찮아!

하고 싶은 말들이 구름처럼 몽실몽실 떠다니는데 잡을 수가 없다. 내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네. 언니 고등학생이라 힘들겠지만 건강도 꼭꼭 잘 챙겨!! 그럼 이만 줄일게. 안녕.

2019년 7월 8일
민서가

고민서 | 제주 동초등학교 6학년 | 제주상 수상작 ■

내 마음 속 1순위 엄마

엄마께

엄마 나 민정이야. 편지를 쓰니까 깜짝 놀랐지? 내가 진심으로 손편지 쓰는 건 정말 처음인 것 같아. 엄마는 첫 결혼인데 드레스도 못 입고, 결혼해도 재미있지도 않고, 우리 아빠 때문에 항상 힘들지? 아빠는 재혼을 하고 어린 내가 있었는데 키워주고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내 자식처럼 키워줘서 고마워.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딸이 아닌 엄마의 가슴속에서 나온 딸인데 내가 엄마의 마음을 잘 아는 것 같아. 내가 어릴 때 상처가 많다고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고 하는 우리 엄마.. 나는 솔직히 상처 받아도 되니까 이제라도 엄마가 상처를 안 받으면 좋겠어. 진짜로 엄마 뱃속에서 나온 동생 민서가 진짜 자식인데 나보다 덜 챙겨주는 우리 동생.. 어린데 나 때문에 항상 밀린 동생.. 나도 이제 민서한테 잘해주고 챙겨주고 그럴거야.

나도 항상 엄마가 1순위야. 내가 표현은 안 했지만 사랑하고, 항상 고마워. 내가 힘들 때 도와주고, 고민거리도 들어주고, 내가 화내면 그것도 받아줘서 너무 고마워. 엄마가 중간에서 제일 힘들지만 이제 그 짐을 내려

놔으면 좋겠어. 내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나는 절대로 결혼은 안 할거고, 엄마랑 같이 살 거고, 엄마랑 해외 여행도 갈거야.

진짜로 나는 나중에 커서 엄마가 지금까지 주던 사랑을 다시 엄마한테 주고 싶어. 나중에라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체고 다니면서 느꼈어. 다른 지역에 있으면서 부모님이 없으니까 정말 힘들고 엄마가 해줬던 걸 내가 하니깐 정말 힘들더라고. 그리고 작년에 항상 학교 갈 때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서 울었는데.. 나는 역시 엄마 껌딱지인 것 같아. 이제 졸업하면 강철 자식이 될 거야~~ 그리고 엄마가 바라는데로 살면서 엄마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엄마.. 지금까지 똑바로 된 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민정 올림

장민정 | 강원 체육고등학교 2학년 | 강원도교육감상 수상작 ■

댓글은 사랑을 싣고

어우리반 김승희 선생님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어우리 5기 인서예요. 어우리 6기 동생들도 궁금하고, 선생님께 말하지 못했던 감사함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작년은 제게 특별한 한해였어요. 중학교를 준비하는 단계이기도 했고, 초등학교 졸업을 앞뒀기 때문에 추억을 쌓고 싶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죠. 지금 돌아보면 용남초 6학년 6반으로서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걸로 인해 제가 더 성장했다고 생각하니 뿌듯했어요.

사실 전 3월에 선생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3월 2일에 만난 지 10분 만에 떠드는 소리 시끄럽다고 화를 내시기도 했고, 다른 반은 안 하는 마인드맵을 1년 내내 해야 한다는 것이 싫었어요. 또 일기를 검사한다는 것도요. 6학년이나 됐는데 선생님이 일기 읽기 댓글 써주고 하는 것은 유치하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선생님은 다르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을 후회한답니다.

선생님께서 일기장에 적어 주셨던 댓글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돼 줬는지도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매주 일기를 쓸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월요일에 선생님께서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실까?’ 하고 웃은 적도 있습니다. 제가 쓴 짧은 이야기나 영화 감상문에 공감하는 댓글도 좋았지만, 제게 가장 큰 힘이 돼 준 것은 친구 관계에 대한 답글이었어요.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반은 유난히 편을 갈라 뒷담을 해서 사건이 많았는데 제 얘기도 종종 오르내렸고 저는 그게 아주 힘들었어요. 그 마음을 일기에 적으면 ‘선생님이 읽으시고 기분이 안 좋아지시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선생님을 힘들게 하는 건 아닌가?’ 하고 자책하기도 했지만 선생님께서 써주신 답글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답글을 보고 집에서 눈물을 글썽일 정도로 정말 큰 힘이 되었답니다.

지금도 생생히 떠올라요. 파란색 펜으로 적힌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을 때, 선생님과 얘기해요.’, ‘인서가 다 받아줄 필요 없어요. 진정한 친구는 친구에게 막말을 하지 않아요.’라고 써주셨던 것과 ‘칸이 좁아 다행이야.’

‘행운을 빌어’라고 적힌 스티커를 붙여주셨던 것까지 모두 제겐 소중한 보물이예요. 또 제 글솜씨를 칭찬해주신 걸 보고 본격적으로 작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선생님께서 제게 힘든 친구관계를 글로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글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희망을 꿈꾸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중학생이 됐는데도 선생님의 댓글이 그리워요. 선생님의 따스한 위로, 새로운 꿈을 위한 코칭 그리고 가끔의 따끔했던 조언들로 인해 제가 지금까지 잘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룡 가면 꼭 연락드릴게요! 선생님 정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하고, 많이 사랑합니다. 학교 인사말 “사랑합니다.”가 아니고 제 진심이 담긴 “I love you 3000”입니다.

※ “I love you 3000.”은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명대사로, 딸이 아빠에게 자기 전에 하는 인사말인데 박인서 아동이 좋아하는 대사라고 한다.

2019년 5월 12일
박인서 드림

박인서 | 세종 종촌중학교 1학년 | 세종시교육감상 수상작 ■

가슴에 눈물바다를 가진 우리 엄마께

엄마께

엄마, 사랑하는 우리 엄마!

저는 엄마의 소중한 딸 지민이에요. 엄마한테 자주 메모도 보내고 편지도 자주 쓰는데 이번 편지는 왜 이렇게 떨리고 슬픈지 모르겠어요. 내가 엄마한테 보내는 고백편지라서 그런 걸까?

엄마, 내 눈 어때? 안경 낀 내 얼굴은 어때? 똑똑해 보이지. 엄마, 기억나? 내가 6살 생일 맞이하던 날 시력검사에서 눈이 너무 좋지 않다고 큰 일이라며 의사 선생님이 무섭게 말씀하셨던 날. 그때 엄마는 무섭게 말씀하시는 의사 선생님 앞에서 울고 또 울었잖아. 그리고도 믿기지 않는다면 큰 병원을 이곳저곳 데리고 다니며 확인하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큰 병원으로 검사받고 치료받을 때마다 내 모습을 안쓰러워했잖아.

엄마, 6살 때부터 지금까지 나 봤어. 밤마다 엄마가 성모상과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 나 재워주면서 내 눈 만지며 눈물 흘리는 거 봤어. 엄마가 그때 엄마 눈이 멀더라도 좋으니까 엄마 시력을 나한테 주라고 울면서 기도했는데 4년이 지난 지금도 엄

마는 기도하고 있는 거 다 알아. 그런데 엄마, 나는 내 눈이 조금씩 좋아질 때마다 걱정이 더 많이 됐어. ‘혹시 정말 엄마 기도가 들어 저서 내 눈이 좋아지고, 엄마 눈이 멀면 어떻게 하지?’ 하고..

그리고 엄마 미안해. 안경 낀 내 얼굴이 보기 싫다고 집에 모든 거울 치워달라고 해서.. 엄마 마음 더 아프게 한거.. 사람들이 수군거릴 때마다 집에 와서 짜증 부리고 속상하게 했던 거 정말 미안해. 나, 이제 괜찮아. 지금은 눈도 많이 좋아지고, 학교에 안경 낀 친구들도 많아. 똑똑해 보인다고 멋으로 안경 끼는 아이들도 있는걸. 그리고 사람들이 안경 껴다고 수군 되지도 않아.

엄마, 이제 나 재워주면서 내 눈 만지며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되고, 엄마 시력 나한테 주라고 기도 그만해. 엄마가 나를 볼 수 있어야 웃는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다는 내 모습도 보고, 내가 예쁘게 자라는 것도 볼 수 있고, 내가 바르게 자랄 거 아니야.

내 소원은 이제 엄마가 내 눈 때문에 걱정 안 했으면 좋겠어. 만약 ‘6살

때 엄마가 내 눈이 안 좋은 상태라고 했을 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으면 지금쯤 내 눈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 다행히 훌륭한 부모님이 계셔서 너무나 행복하고 고마운 생각이 들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엄마한테 이제야 걱정하지 말라고 나 괜찮다고 그리고 정말 고맙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무 오랫동안 엄마 가슴이 눈물바다가 되도록 한 것 같아. 엄마 가슴의 눈물바다는 내가 올바르게 훌륭한 사람이 되면서 기쁨의 바다로 되게 할게요. 엄마, 건강하세요. 정말 정말 진심을 담아 고맙고 사랑해요.

2019년 7월 15일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 이지민 올림

이지민 | 대전 내동초등학교 3학년 | 대전시교육감상 수상작 ■

할머니의 장미꽃

할머니께

엄마! 나 지금 엄마한테 편지 쓰고 있는데 내가 부르는 소리 들려? 오랜만에 엄마에게 편지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꼭 읽어줘. 시작은 나 엄마 못 봐서 서운했다고, 너무 밋지만 보고 싶다고 하려 했는데 솔직히 엄마와의 추억이 떠오르지 않아 슬퍼지려 해. 내 곁에 너무 짧게 머문 탓이라고도 또 따지고 싶네.

엄마는 내가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학교생활은 어떤지 모르지? 나 친구들이랑도 되게 잘 놀고, 친구들 이야기 들어주는 것도 좋아해. 제일 많이 들은 얘긴 자기들이랑 엄마랑 싸운 얘기를 나한테 자주 해. 웬만하면 공감도 해주며 듣겠지만 특히 이런 주제는 공감도 못 해줘서 참 난감해.

또 학교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오라고 했었는데 다음 날 학교에 가니까 친구들이 종이를 들고 반을 돌아다니면서 서로 보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엄마.. 다른 친구들은 부 000, 모 000 이렇게 적혀있고, 많으면 형제들까지 줄줄이 인데 나는 딱 한 줄이더라고.. 본인 김민지..

엄마는 서운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나 솔직히 살면서 엄마 생각해본 적이 잘 없어. 엄마 없는 걸 의식하지 않으면 다른 친구들이랑 난 별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다른 친구들의 주민등록등본을 보고 내 가방 속 깨끗한 흰 봉투 안에 접혀있는 나의 종이를 생각하니 가방에서 꺼내기가 몹시 망설여졌어.

내 주민등록등본에 적혀있는 그 한 줄이.. 그 한 줄에 적혀있는 몇 글자가.. 세상을 나 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놀리기라도 하듯 증명해주는 것 같았어. 난 아직 알고 싶지 않았는데 말이야. 아니 그냥 피하고 싶었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친구들과 나는 다르게 아니라 내가 틀린 것 같았어. 그래서 나 그 주민등록등본 뒤집어서 제출했다..ㅎㅎ (제출한 뒤 곰곰히 생각했어. 왜 난 당당하지 못했고 부끄러워했을까.)

명절날 삼촌네 가족, 이모네 가족이 다 모여. 나는 두 가족 사이와는 다른 섬같이 홀로였어도 할머니 덕분에 그리 외롭지는 않았어. 우리 할머니는 나를 할머니만의 따뜻하고 포근하고 푸근한 울타리 안에서 남 부럽지

얇게 자라나게 하시면서 그 누구보다 씩씩하고 당당하게 키워내셨거든.
그게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생각하니깐 너무 화가 났어.

엄마가 떠날 때 집을 팔아서라도 엄마를 살릴 거라고 하셨던 할머니는
매해 조금씩 작아지고 계셔. 딸을 먼저 보낸 엄마인 할머니와 엄마를 잃
은 딸 나.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슬퍼한 날보다 오히려 웃는 날이 더 많았
던 것은 나보다 할머니가 더 씩씩하셨기 때문이야. 내 앞에서 할머니는
늘 담담하시지. 옛날에는 엄마 사진을 봐도 엄마 이야기가 나와도 늘 담
담하셨던 할머니가 난 이해되지 않았어. 그래서 할머니께 화를 털어 낸
적도 있었어. 슬프지도 않냐고, 어떻게 그게 그렇게 금방 쉽게 잊을 수 있
냐고 말이야.

엄마. 나는 바보처럼 슬픔을 가슴속에 심었나 봐.

이런 내게 할머니께서 그러셨어. 슬픔은 가슴에 심어 두는 게 아니라
묻어두는 거라고. 묻는 건 심는 거와 다르데. 심는 거는 자라서 튀어나와
가슴을 찌르며 괴롭게 하지만 묻는 건 자라지 않으니까 그대로 있으니까

괴롭지만은 얇게 하는 거래. 할머니는 그렇게 서러움에 잠겨 드는 나를
다독이셨어. 슬픔 같은거 심어서 키우지 말고 묻어두고 잊으라고. 뭐 말
씀인지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은 알 것 같기도 해. 내 키가 할머니 키를
훌쩍 넘었으니까.

어느 날 할머니가 파마 손님을 하고 있는데 집 앞에 트럭 한 대가 왔는
데 그 트럭에는 커다란 무언가가 있었어. 할머니는 트럭이 온 걸 보시자
마자 파마 약이 묻은 장갑을 재빨리 벗으시며 헐레벌떡 뛰어나가셔서 그
커다란 물체를 그 기사분과 같이 옮기셨어. 그건 피아노였어.

내가 언젠가 우리 집에도 피아노가 있으면 엄마처럼 피아노를 잘 칠 수
있을 거라고 입방정을 떨어졌거든. 그 소리를 마음에 담아 두셨던 모양이
야. 피아노를 보고 좋아 날뛰는 내 모습에 할머니는 숨길 수 없는 미소를
지으셨어.

할머니는 피아노 앞에 나를 앉혀 주셨어. 난 그때 칠 수 있는 곳이 없었
거든. 반짝반짝 작은 별이나 치면서 할머니 앞에서 재롱을 부렸지. 할머

니께서 장갑을 급하게 벗으시다 파마 약이 손에 묻은 채로 피아노를 옮기셨는지 아직도 피아노 옆면에는 파마 약이 묻어있어.

할머니가 꽃밭 가꾸기를 유독 좋아하셨던 거 알지? 그런데 할머니 손에는 죄송스럽게도 꽃향기 대신 파마 약 냄새가 떠나가질 않아. 할머니는 언제 꽃밭을 가꾸셨는지 기억이나 하고 계실까. 손님이 오지 않는 시간에도 할머니께서는 내 걱정하시기 바쁘셔. 꽃향기가 아닌 파마 약 냄새만 나는 할머니의 손으로 주신 그 귀한 용돈을 나는 친구들이랑 놀기 바쁘고 매일 부족하다고만 떼쓰고 있었지 뭐야.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엄마와 길거리를 다니지만 나는 할머니랑 다니는 게 어렸을 땐 뭐가 그렇게 부끄러웠는지. 할머니 앞에 가며 모른 체하기 바빴던 나를 보시며 할머니는 어떤 마음이셨을까. 정말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데 과거를 되돌려 상처를 없애 드릴 수 없다는 것에 한번 더 미어져 와.

지금 할머니께서는 전에 키우셨던 꽃들보다 백 배, 천 배 이상으로 나

를 꽃처럼, 꽃 가꾸듯 조심스럽고 예쁘게 키우셔서 이제는 손 놓고 바라보기만 해도 예쁜 꽃인 내가 되어있어야 하는데 밖에서는 어디에도 없는 착한 아이의 이미지로 살아가지만 정작 할머니 앞에서는 그렇지 않더라고.

할머니랑 싸울 때마다 할머니께서는 내가 화내고 짜증 내는 모습에 엄마가 과거에 할머니한테 화냈던 모습이 내게 보였는지 “니 하는 짓도 그 엄마 빼다 박았다. 어찌 그리 하나를 빼놓지 않고 다 빼다 박았노?”라고 많이 말하셔..

할머니의 기억 속에 엄마는 미우면서 사랑하는 마음일지 모르지만 내 기억 속에 엄마는 내가 하는 말에 “맞나?”라고 맞장구쳐주며 흐뭇하고 기분 좋은 미소로 나를 지그시 바라봤던 그런 자상하고 예쁜 우리 엄마였거든.

그런데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니 괜히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10년의 엄마와 나의 얼마 없는 추억마저 깎아내리는 기분이라 더 화내기도

했었어. 그런데 희한한 건 뭔지 알아? 내가 예쁘게 꾸미고 할머니 앞에서 재롱을 부리고 이쁜 짓을 해도 할머니께서는 나를 지그시 바라보시며 변함없는 표정으로 "니 참 느그 엄마 빼다 박았다." 라고 하셔.

난 아차 싶었지. ‘할머니가 그렇게 꽃같이 키우셨던 엄마가 할머니 곁에 오래 남지 못했으니 나를 꽃으로 키우시며 엄마의 향기를 느끼시는구나?’라고.. 나를 키우며 나를 보시면서 묻어두셨던 엄마의 추억을 회상하며 엄마의 향기를 느끼며 행복하셨을 텐데..

아까 말했잖아. 난 그런 존재가 못되어 드리고 있다고. 할머니께서 겨우 ‘묻어’ 놓으신 걸 내가 다시 꺼내 ‘심어’ 두어 가지가 자라서 여러 곳을 상처 나게 한 나는 죄송하다고 이제 잘 하겠다고 말도 못 하겠어. 왜냐고? 이미 수만 번 해왔거든.

내가 할머니의 꽃이고, 꽃밭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난 여러 번 할머니께 더할 나위 없이 잘해드리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기를 수없이 했어.

그래서 정말 그동안 죄송했고 가시에 찢려 상처 나면서까지 나를 이쁘게 키워주셨는데 난 보답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의 난 할머니께 신뢰도를 완전히 다 잃은 것 같아 이런 말조차 못 하고 있어.

그래서 엄마! 이거 할머니한테 편지 써드리고 싶었거든. 근데 난 지금 그럴 자격이 없으니깐 “엄마”라는 이름을 빌려서 할머니께 전하려는 거야. 할머니가 지금 나에게 엄마니까.

엄마! 아니, 이제 제대로 부를래.

할머니! 할머니의 넓고 깊고 따뜻한 품 아래서 키워낸 제가 죄송하다는 말도 잘 하겠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직접 해드리지 못해 이렇게 조심스럽게나마 편지로 쓰고 있어요. 할머니께 화냈던 나날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굳은 다짐을 하고도 내가 변하지 않을까봐 걱정이예요.

이런 저를 할머니의 푸근한 품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공부하면서 꿈을

꿀 수 있는 행복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죄송한 만큼 감사드리고 감사한 만큼 많이 사랑해요. 부디 건강하게 오래 제 곁에 계셔주세요. 사랑합니다!

할머니의 장미꽃 손녀딸 민지 올림

김민지 | 경남 충무고등학교 1학년 | 경남교육감상 수상작 ■

나의 짱친 나선희 교장 선생님께

교장 선생님께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진남중학교 3학년 정소청이에요.

제가 선생님을 처음 뵈던 날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중학교 마지막 학년을 걷고 있어요.

1학년 때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전 지금 이렇게 잘 지내지 못했을 거예요. 처음 중학교를 입학해서 들뜬 거였는지 나도 이제 중학생이라는 설렘 때문인지 마냥 중학교 생활을 기대하고 있었죠.

하지만 기대와 달리 저의 1학년 생활은 무척이나 서툴렀었죠. 1학년 때 친구들과 다툼이나 혼자 동떨어졌었죠. 그러던 어느날 아침을 못 먹어 학교 앞 마트에서 너구리 라면을 사던 저를 “너구리 짱친”이라며 절 짱친으로 불러준 선생님. 그때가 저와 선생님의 첫 만남이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시간이 점점 들어 학교에서 저 혼자 떨어진 시간이 갈수록 많아졌어요. 저는 너무 힘든 나머지 학교를 더 이상 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았어요. 어린 저는 학교를 막무가내로 안 나가기 시작했죠. 제가 한 선택이지만 너

무 두렵고 불안했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해주고 충고를 해주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제가 학교를 왜 안 나가냐고만 할 뿐 저의 상황은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저는 여느 때와 같이 학교를 안 가고 다른 곳으로 새려고 준비 중이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저를 학교에 데려가시려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서 선생님과 학교에 갔죠.

사실 그때 속으로 학교에 다시 가게 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돌아가는 내내 위축이 되었어요. 저는 반으로 곧장 들어가서 수업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 너무 무서웠어요. 다시 반으로 가 친구들의 얼굴을 보기가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저의 걱정과 달리 선생님은 저를 교장실로 데리고 가주셨어요. 저희는 그날 이후 공식 짱친이 되었죠.

이 일들 모두 기억나시나요? 지난날들 정말 감사했어요. 친구도, 부모님도, 담임선생님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을 때 유일하게 교장 선생님만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저의 상황에서 공감해주셨어요. 부끄러워서 지금까지 말을 못 했지만 감사해요. 사실 그때 학교에 너무 가고 싶었어요.

괜한 자존심 때문에 그랬던 거지 그날 이후로 저는 교장 선생님과 세상에서 제일 친한 짝친이 되었죠.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저에게 교사라는 꿈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선생님은 저의 위대한 스승이자 저의 변치 않을 짝친이에요. 선생님 덕분에 저의 중학교 시절은 최고의 학창시절이에요.

선생님! 제가 꼭 선생님처럼 훌륭한 교사가 되어 저같이 힘든 학생들에게 선생님과 같은 스승이 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졸업을 해도 저 잊으시면 안되요! 물론 중학교를 떠나는 것도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도 한편에는 기대가 되면서도 또 무섭기도 해요. 그래도 교사라는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길이라 생각을 하니 오히려 기대가 돼요.

항상 멀리서라도 저를 응원해주세요. 늘 언제나 사랑하고 또 저에게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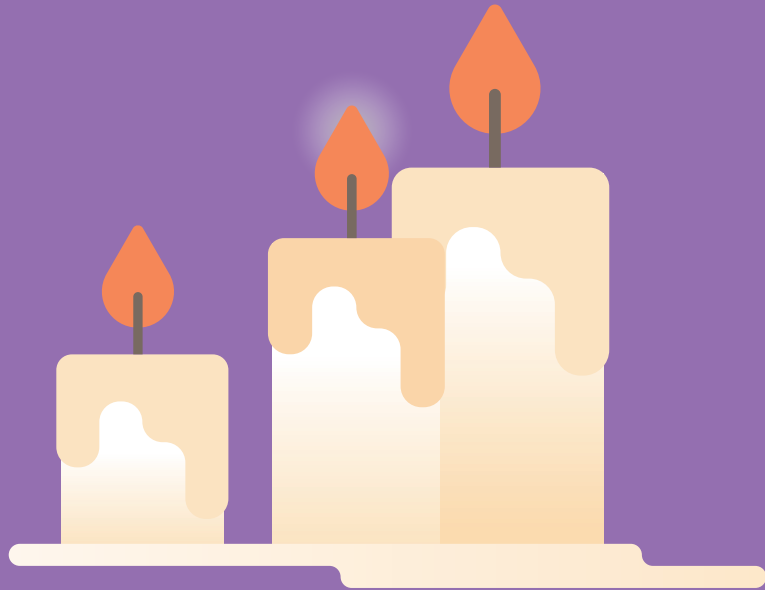
을 갖게 해주신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그날부터 제 짝친 1순위는 선생님이예요! 항상 잘 지내세요. 늘 항상 선생님이 계신 곳 어디든 꼭 응원하고 있을게요.

2018년 5월 21일
선생님의 제자 소청 올림

정소청 | 광주 진남중학교 3학년 | MBC사장상 수상작 ■

시완이는 아주 작고 말랐고 손을 대면
금방이라도 깨져버릴 것 같은
바람 앞의 촛불 같았어.

그래서 나는 너를 함부로 만지지 않았고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던다.



모든 걸 다 들어주는
램프요정 우리 엄마

인천 가좌여자중학교 2학년 전예나

내 마음의 치료자
이상향 선생님께

경기 안양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채서영

우리집 보물!!
내 동생 시완이에게

경남 산청초등학교 6학년 박지우

인생의 길라잡이
민정 선생님께

서울 대원여자고등학교 3학년 이은현

몰랐어요.. 내가 아프면
엄마도 아프다는 걸

충북 청주오창중학교 3학년 이현지

모든 걸 다 들어주는 램프요정 우리 엄마

엄마께

엄마 이렇게 긴 편지를 쓰는 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하다.

난 사실 이 편지를 엄마가 안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보면 엄마가 울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엄마는 힘들어하면서 저를 행복하게 해줬어요. 그건 물론 4학년 때 까지만요. 물론 엄마는 항상 날 웃게 해줬어요. 하지만 이 모든 불행은 아빠 때문이죠.

아빠는 분명 4학년 때까지만 해도 정말 착하셨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워지고, 일은 없고, 아빠는 늘 화가 나 있었죠. 전 늘 조심해야 했어요. 가끔은 폭력도 썼거든요. 너무 힘든 나머지 엄마는 위염에 걸려서 살이 10KG이나 빠졌고, 그 상태로 쉬지 않고 일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전 아직 어려서 일을 못 했으니까요. 그래서 큰언니, 작은언니, 나 이렇게 집안일 했잖아요. 사실 티는 내지 않았지만 힘들었고 평평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더 슬퍼할 거 같아서 못 울었죠.

사실 가끔 엄마를 원망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내가 부끄러워요. 학교에 엄마가 와서 반기면 어린애같이 보인다는 생각에 엄마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어요. “엄마 다음부터는 오지마. 좀 그래.”라고 했죠. 생각하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너무 미안해요.

중학교에 올라와서 이제 막 즐겁고 행복해질 때 아빠랑 엄마는 크게 다투서 결국 둘이 갈라셨잖아요. 아빠가 너무 밍고 싫어서 가끔 죽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빠잖아요. 집이 좀 쓸쓸했어요.

이런 아픔들을 슬슬 잃어버릴 때쯤 우리 가족 모두가 힘들어질 수 있는 저의 중2가 시작됐죠. 처음에 엄마한테 “반에서 친구가 날 싫어하면 어찌지?” 라며 가끔 얘기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런 것까지 말씀드리면 생각이 많아지셔서 또 위염에 걸릴 것 같아서 말 못 했어요. 근데 올라와 보니 친구들이 다 말 걸어주고 하다 보니 친해졌어요.

엄마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 낮 많이 가려요. 근데 중2에 올라와서인지 아니면 내가 원래 그런 아이였는데 저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가 친구들에게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이제 친구들도 모두 날 좋아하고 친해지는 것 같아서 밤에 잠을 푹 잘 수

있었어요.

이제 다 어릴 때 형편이 어려웠지만 교회에서 쌀을 빌려서라도 저를 먹이시고, 유치원 때 항상 예쁜 옷도 입을 수 있게 해주시고,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기죽지 말라고 롱패딩과 장난감도 사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바쁜 와중에도 행사 있으면 맛있는 걸 들고 오셔서 나부터 주시고, 일 다녀오셔도 힘든 기색 하나 안 보여주셔서 덕분에 지금에 제가 빠тол어지지 않고 잘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해요” 또 “감사해요” 나도 꼭 엄마 같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우리 엄마는 완전 슈퍼 영웅이에요. 잃어버린 물건 찾아주시고 어떤 오빠가 때리면 혼내주는 멋진 우리 엄마.

나요..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엄마 내가 꼭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서 꼭꼭 아파트 100개 사줄게.”라고 말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아니 어찌면 될 수도 있는 이야기네요. 엄마 옛날에 이야기했던 거 다 해드릴게요. 효도 꼭 할게요.

엄마가 나 때문에 하고 싶었지만 포기했던 일들 전부 다 해줄게요. 엄마 항상 옆에서 응원해주고, 욕심부리지 않고 지원해주시고, 버리지 않고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엄마가 가고 싶어 하셨던 시골도 맘 편히 가셔도 돼요. 나 이제 스스로 뭐든 할 수 있어요. 우리 남부럽지 않게 살고 꼭 잘 살아서 우리 힘들게 한 주위 사랑들이 후회 할 수 있게 해요.

나 꼭 이번엔 알바해서 꼬옥~ 엄마가 바라보기만 했던 귀걸이 사줄게요. 이번엔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꼭 사줄게요. 그리고 나 집에 가면 이제 엄마 안아 줄게요. 그리고 더 이상 실수 안 할래요. 엄마가 속상하지 않게 열심히 살게요!! 엄마 사랑하고, 감사하고, 미안해요.

2019년 5월 21일
엄마 고생시킨 철없는 예나가

전예나 | 인천 가좌여자중학교 2학년 | EBS사장상 수상작 ■

내 마음의 치료자 이상향 선생님께

선생님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작년에 3학년 4반이었던 서영이예요. 고등학교 한 학기가 지나갔지만 아직도 중3 생활이 기억날 정도로 저한테는 즐거웠던 1년이었어요. 처음 3학년에 올라갔을 때는 여느 때와 비슷하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학교생활 일줄 알았는데 지금 중3을 생각해보면 웃음부터 나요.

사실 중3 시기가 저한테는 조금 힘든 시기였어요. 스스로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도 많았고, 공부도 잘되지 않았거든요. 공부를 하려고 해도 집중을 못 하고 저 자신한테 짜증만 냈어요. 혼자 침대에서 누워있는 시간만 늘어 갔어요. 자연스럽게 부모님과 사이도 안 좋아졌어요. 착실하게 성적 관리하고 비교과 활동도 준비해서 특목고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막판에 자꾸 무너지니까요.

그런데 제 성격상 누군가한테 툭 터놓고 말하기가 힘들었어요. 친구들은 제 성적을 보고 괜찮을 거라고만 했고, 힘들다고 해도 지나가던 말로 여기기만 했어요. 다른 선생님들도 객관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으니 조금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만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께서 상담을 오라고 부르셨을 때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학기 초에 형식적으로 하는 통과 의례 정도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처음 하신 말 때문에 정말 놀랐었어요. 선생님이 “공부는 잘 되거나”, “힘들지는 않냐?” 물어보실 때마다 그냥 웃으면서 괜찮다고만 했더니 “서영이 지금까지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구나?”라고 하셨던 말 때문이었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공부 잘하는 아이’라는 이미지가 깨지는 느낌이었거든요.

또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은 정말 잊지 못할 거예요. “방황하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시기는 맞아.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되면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하게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해서 말을 하는 거야.” 선생님이 정말 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해주시는구나 하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이더라구요. 울 것 같아서 길게 말은 못 했지만 그래도 조금이

나마 속에 있던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이후로 선생님을 참 많이 따르게 됐어요. 맛있는 거 먹으러 교무실 가서 애교부리기도 하고 선생님과 셀카도 찍고 사소한 거라면 사소하지만 정말 많이 즐거웠어요.

지금 고등학교 와서도 선생님 생각 참 많이 해요. 시험 볼 때 잘 보면 선생님께 자랑하고도 싶고, 못 보면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선생님 말씀처럼 지금의 성과에 만족하려고 하고 있어요. 학교생활이 힘들어지면 면접 때 도와주시면서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선생님 말씀을 떠올리며 힘을 얻고 있어요.

최대한 자주 찾아뵈려고는 하지만 야자랑 시험이랑 생각보다 많이 바쁘더라고요. 작년에는 분명 매일매일 갈 수도 있다고 그랬었는데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단순한 교사와 학생을 넘어 저한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처럼 저도 졸업했다고 끝인 그런 제자로 남아있기도 싫어요. 자주는 아니더라도 꾸준히 찾아뵈고 대학 붙으면 선생님께서 술 사주신다고 한 거, 꼭 기억하고 갈게요! 정말 한 번도 제대로 된 인사를 못 드

린 것 같아요. 선생님, 정말 감사하고 언제나 사랑해요! 조만간 방학이니 꼭 꼭 한번 놀러 갈게요!

2019년 7월 10일
선생님 제자 채서영 올림

채서영 | 경기 안양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 문화일보회장상 수상작 ■

우리집 보물!! 내 동생 시완이에게

인큐베이터에서 살아나온 내 소중한 동생 시완이에게

시완아 안녕? 네 첫째 누나인 지우 누나야. 매일 만나지만 이렇게 편지를 쓰니 쑥스럽고 부끄러워. 하지만 너로 인해 나와 우리 온 가족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꼭 전하고 싶어 이 편지를 쓴다.

내가 11살 초등학교 4학년 때 너는 우리 집의 선물이자 축복이었어. 엄마가 너를 갖게 되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 아빠는 엄마에게 어떤 소원이든 다 들어주신다고 하셨지. 그런데 갑자기 방에서 엄마가 배가 아파서 119구급차를 타고 큰 병원에 가셔서 수술을 통해 널 낳으셨단다.

온 가족이 없는 집에서 엄마와 아빠와 너를 기다리는 일은 너무 무섭고 힘든 일이었어. 그래서 엄마를 보고 싶다고 울자 할머니께서 엄마 병원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어. 그런데 예쁘고 곱던 엄마의 얼굴에 슬픔이 가득하고 무척 아파 보여서 겁이 났단다. 그때 울고 떼를 쓰면 안 된다고 나와 네 형 진완이는 다짐하고 다짐을 했어. 오래 참고 참음의 시간은 무척 힘들고 길었는데 5개월 후 네 모습을 보며 내가 오히려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처음 시완이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어린 너보다 먼저 들어온 것은 생명 유지 장치와 산소통이었어. 아빠는 아기 시완이를 위해 방에 병원을 만드셨고 너는 병원과 똑같은 집에서 우리와 함께 살게 되었단다. 아빠는 젊고 씩씩한 모습이었는데 너를 바라볼 때마다 걱정의 주름이 이마에 새겨지는 걸 보며 ‘아빠도 늙어가는구나.’라고 생각했어.

시완이는 아주 작고 말랐고 손을 대면 금방이라도 깨져버릴 것 같은 바람 앞의 촛불 같았어. 그래서 나는 너를 함부로 만지지 않았고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단다. 한참 뒤에 겨우 안아 봤을 때 너무 가벼웠지만 천사처럼 따뜻한 생명력이 느껴져 눈물이 났어.

그러던 어느 날 일을 하셔야 하는 어머니를 위해 “돌보미 이모”가 시완이를 돌보아 주시러 오셨단다. 이모는 경상도 사투리가 아주 구수한 분이셨고, 너를 건강한 아이로 키우시려고 노력하셨어. “자, 우리 시완이 우유 많이 먹고, 힘을 내야지. 반드시 걸을 수 있어!” 그리고 우유를 먹는 내내 네 다리를 만져주시며 일어나야 한다고 기도해주셨어. 그런 모습을 보며

나도 우리 시완이가 건강해져서 나에게 떼쓰고 귀찮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게 되었어.

둘째 동생 진완이는 학교만 마치면 손살 같이 집으로 달려와 네 앞에서 놀곤 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혹시 너를 다치게 할까봐 돌보미 이모에게 꾸중을 들었던단다. 시완이를 만져보고 안아보려고 떼를 쓰다가 돌보미 이모의 도움을 받아 처음으로 안아 봤는데 얼음처럼 굳어져 가만히 있었어. 진완이도 나처럼 네가 아플까봐 두려웠던 것 같아.

하지만 지금은 네가 일어나 한발 한발 걸을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고마운지 몰라. 나와 진완이가 인사할 때마다 따라서 배꼽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너는 우리 집의 보물이라는 생각이 들어. 처음 말문이 트였을 때 “우리 시완이가 아빠라고 불렀어.”, “아나 엄마라고 불렀어.”, “아나, 누나라고 불렀어”라며 서로를 불렀다고 우기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얼마나 시완이의 삶에 간절한 희망을 담고 있는지 알겠어.

사랑하는 내 동생, 보물보다 더 소중한 내 동생 ‘박시완’

사랑하는 시완아, 내 동생으로 태어나 주어서 정말 고마워. 항상 너의 편이 되어 줄게.

2019년 7월 4일
시완이를 사랑하는 누나가

박지우 | 경남 산청초등학교 6학년 | 고도원이사장상 수상작 ■

인생의 길라잡이 민정 선생님께

선생님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선생님의 자랑스러운 제자가 되고 싶은 이은 현입니다!

벌써 2019년의 꽃이 피던 봄을 지나고 푸른 나무가 보이는 5월이 다가 왔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5월이 감사의 달이라고 부르잖아요. 저는 오늘 계절을 빌려 감사의 달을 빌미로 부끄럽지만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 하고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고3 때 시간이 더 빠르게 느껴 진다고 하던데 그게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하루하루 더 아쉬움이 남고 더 열심히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답니다. 선생님도 그러셨나요? 편지를 쓰다 보니 선생님의 첫 만남이 떠오르네요. 선생님을 처음 뵈는 날이 2년 전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어느덧 3학년이 되다니 선생님도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그래요. 만약 제가 고1 때 서울로 전 학 온 것이 운명이었다면 아마 제겐 선생님을 뵈는 것 또한 운명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선생님은 제게 특별하십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무엇이 삶에서 중요한지 알지 못할 때 선생님을 처음 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참 어렸던 것 같아요. 선생님 눈에는 제가 아직 어리게만 느끼실지도 모르겠지만요. 선생님 기억 하시나요? 제가 작년에 전학 왔음에도 반장이 된 일이지요! 그때 반장 선거 때문에 선생님과 상담했던 일이 기억나네요. 특히 그때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도전하지 않는 것만큼 후회되는 것이 없어”, “선생님은 은현이가 무엇을 도전하고 이루는 기쁨을 알게 되면 좋을 것 같아.”라고 말씀하신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서 반장 선거에 나가고 반장이 되었던 순간의 감정들이 아직도 또렷하게 남아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처럼 내가 도전하고 이뤄내는 순간이 저에게 얼마나 필요한 건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반장이 되고 나서 더 이상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무언가를 도전하게끔 이끌어 주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과 지나왔던 과거를 되돌아보니, 다른 무엇보다 선생님께서 해

주셨던 말들이 떠오르네요. 선생님이 아시다시피 저는 남에게 하고 싶은 말도 못 하고, 속마음 얘기하지 못하는 성격이잖아요. 그래도 선생님은 마음을 열지 못하는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모습 “선생님이 기다릴게.”, “너에게 들킨 어른이 되도록 노력할게.”라며 말씀하셨던 그때의 기억을 저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힘들 때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제가 부모님 외에 처음으로 믿어도 되는 사람, 들킨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드신 선생님이세요. 이런 말 왠지 부끄럽지만, 선생님을 의지하게 되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시다.

선생님께서서는 굉장한 힘을 지니신 것 같아요.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시고, 좋은 영향을 주시고, 뻔한 말을 꼭 지키시는 행동이 저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선생님을 본받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 좋은 영향을 나눠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종종 예전 학교 친구들과 연락을 하며 지내는데, 아이들이 저에게 “잘 적응한 것 같다”, “훨씬 밝아진 것 같다.”라고 말해줍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선생님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은 친절에도 노력이 필요함을 알려주신 저의 유일한 어른이셨죠. 선생님은 늘 저에게 “은현이는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될 거야. 선생님이 장담해!” 라고 용기를 심어주셨습니다. 선생님을 뵈지 않았더라면, 저는 더 오랜 시간 방황했을 거예요. 선생님을 만난 게 제 인생의 행운 중 하나라고 감히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선생님은 제게 하나뿐인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과 만났던 순간을 그 어떤 순간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저도 선생님께 하나밖에 없는 훌륭한 제자가 되고 싶어요. 따뜻한 마음과 긍정적인 마음을 나눠주신 선생님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저는 더 많은 아이들에게 그 마음을 전하려고 해요.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셨던 것처럼요. 앞으로도 곁에서 선생님의 특별한 마음들을 배우고 싶습니다. 저의

전부이신 선생님께 이렇게 마음을 전해봅니다.

사랑합니다! 선생님! 정말 사랑합니다! 선생님이 남들에게 베풀었던 마음을 돌려받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을 배우고 싶은 제자, 이은현 올림

이은현 | 서울 대원여자고등학교 3학년 | 어린이재단회장상 수상작 ■

몰랐어요..내가 아프면 엄마도 아프다는 걸

엄마께

”엄마! 사랑해요!“ 라는 말로 먼저 시작할게요. 저 현지예요. 엄마가 사랑한다고 소곤소곤 말해주는 16살 사춘기를 아직 못 벗어나고 있는 딸이요. 잠자는 시간 빼고는 매일 같이 호흡하는 엄마께 편지를 쓰려니 낯설고 쑥스러워요. 하지만 평상시엔 전하지 못하는 말이 있어서 이런 공모전을 통해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 펜을 들었어요.

요즘 학교로 가는 길에는 논과 들녘이 온통 초록색이에요. 이 초록의 빛은 마음 까지 싱그럽고, 기분 좋게 하는 색깔인 것 같아요. 논두렁 길을 걷다 보면 풍기는 거름과 섞인 흙냄새가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시골 냄새가 되어버렸어요. 매일 걷는 이 길에서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제가 이제는 싱그럽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건 시간이 지나서이기도 하겠지만 견딜 수 없는 시간을 엄마가 같이 아파하고 옆에 계셔주었기 때문이에요.

지난 시간이 너무 많이 죄송해서 지금도 눈물이 나려고 해요. 중1... 그럭저럭 지내던 제가 2학기에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했지요.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싸한 느낌과 눈빛들...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저는 숨이 막

힌다는게 어떤 기분인지 그때 알았지요. 몇 명의 친구들의 왕따로 반 전체 친구들은 저를 멀리했고, 전담과목 교실을 혼자 다녀야 하는 외로움과 체육 시간에 혼자 견디어야 하는 막막함... 특히 점심시간에 급식소를 혼자 가야 하는 건 죽기보다도 싫었었어요. 그래서 굶은 날이 더 많았죠.

이 모든 걸 학교 다녀온 뒤면 엄마가 내 옆에서 다 들어주시고 공감해주시고 웃기지도 않는 말에 박수까지 쳐주시며 웃어주셨죠. 그때는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아픈 건지... 저만 아픈지 알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죄송해요... 사랑하는 만큼 죄송해요. 매일 아침 학교 가는 게 싫어서 잠에서 깬지만 눈뜨지 않았어요. 하루의 시작이 무서웠거든요. “괜찮아. 혼자면 어때! 아빠도, 동생도, 엄마도 있는데 다 네 편인데. 네 잘못이 아니야.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덜 성숙해서 그러는 거야! 엄마는 네가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면 좋겠어. 넌 충분히 사랑받을 아이야.” 라고 소곤소곤 주문을 외우듯 매일 같이 같은 말씀으로 저를 위로하셨지요. 얼굴까지 가린 이불 속에서 듣지 못 들은 척 했지만 엄마의 진심 섞인

말씀이 그나마 학교를 갈 수 있었던 밑거름이었던 거 같아요.

퇴근하고 돌아오시는 엄마는 제 옆에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저의 이야기를 기다리셨고 저는 일기장에 혼자 글을 써 내려가듯 짜증이 났던 일, 기분 좋았던 일, 오늘은 조금 견딜만 했던 일 등 저의 이야기를 소나기 내리듯 들려 드렸지요. 어느날 부터인지 너무 감사했어요. 선생님처럼 “네가 이렇게 생각해봐.” 하시지 않고, 어떤 충고도 없이 묵묵히 내 말을 들으시고, 고개만 끄덕여 주셨던 엄마가 제 편이라는 확신도 들었어요.

그래서 움츠렸던 제 마음이 펴지기 시작했고, 더는 주눅 들고 혼자여서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를 왕따시키는 친구들을 무시해 보니 그다지 저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제가 점점 다가가려고 할 때 친구들은 이런 제가 귀찮고 싫었었나 봐요.

어느 날부터 혼자 책을 읽고, 혼자 다녀도 두렵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쯤 다른 친구들이 손을 잡아 주고 같이 걸어주었고 그때의 아픔이 다 지워진 건 아니지만 16살 소녀에게는 아직도 꾸어야 할 꿈이 무한하다는 걸

엄마가 알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한 번도 엄마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도 못 했어요. 마음은 항상 감사하면서도 엄마는 늘 내 뒤에 있으니까. 짜증부터 냈던 것 같아요.

엄마! 저와 이제 나란히 걸어요. 엄마도 아팠잖아요. 엄마라는 이유로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친구처럼 저도 엄마 곁에서 엄마 이야기 들어주고 싶어요. 끊어질 것 같은 동아줄처럼 아슬아슬했던 저를 제일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항상 바른 아이로 자랄게요!

받은 사랑, 너무 커서 저도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며 따뜻함을 가진 아이로 클게요! 이젠 저 때문에 아파하지 마세요. 남은 중학교 3학년 생활 잘할 테니까 지금처럼 믿어 주시면 돼요. 첫딸이어서 제대로 표현하기도 못했는데 너무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 엄마.

2019년 7월 13일
장마 소리를 들으며 예쁜딸 현지 올림

이현지 | 충북 청주오창중학교 3학년 | 장려상 수상작 ■

